정책연구보고서 2012-06

효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교육방안

Modern Meaning and Practice of Filial Piety and Education Plan

장창수 · 장재천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 구 책 임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장재천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 4

제2장 효사상의 원류와 휴머니즘(Humanism) ····· 7

제1절 효사상의 형성 ····· 9

제2절 효의 참뜻 ····· 13

제3절 효의 중요성 ····· 17

제4절 효의 본질 ····· 18

제5절 인간애와 인간교육 ····· 20

제3장 효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의식의 제고 ····· 25

제1절 가족윤리 ····· 27

제2절 사회도덕 ····· 32

제3절 경로효친 ····· 37

제4절 인생토대 ····· 40

제4장 효문화축제 및 효행상 운영사례 ····· 45

제1절 효문화축제 운영사례 ····· 47

제2절 효행상 운영사례 ····· 55

제5장 효 실천 및 교육방안 ····· 57

제1절 효행의 규칙과 실천 ····· 59

제2절 효행의 생활화 ····· 61

제3절 효행수준 측정 ····· 74

제4절 봉사활동 ····· 76

제6장 효문화 콘텐츠 개발 ····· 79

제1절 효문화사업 개발 ····· 81

제2절 인센티브 부여사업 ····· 92

참고문헌 ····· 95

부록 : ····· 100

표 목 차

<표 1> 노인교육 내용의 예시 ····· 39
<표 2> 대전광역시 효문화뿌리축제 프로그램 ····· 48

그 림 목 차

<그림 1> 새로운 효 개념의 기본적 4요소 ····· 5
<그림 2> 새로운 효 개념의 정립 ····· 6

제 1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하여 점차 약화되어가는 효문화의 회복과 창달을 위하여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의 조성과 함께 해마다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국 유일의 족보박물관을 건립하는가 하면 효문화지원센터와 효문화마을을 운영하는 등 대전광역시를 효문화 선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더욱이 2012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안타깝게도 효하면 구시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다. 학교에서도 효를 교육하기보다는 대학입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또한 패륜아에게 어떠한 사회적인 제재도 없다. 그러나 아직도 효는 우리들 가슴 속에 면면히 살아 있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문화라고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바 있다.

효문화는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의 뿌리 깊은 정서이면서 실천문화이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환경지배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 문화를 지켜온 선비사상에도 그 기초를 둘 수 있다. 우리의 역사를 알고 뿌리를 알고 전통적 문화를 이해했을 때 현대적 효문화가 정립되는 것이다.

이제 효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과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효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라 하여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도덕으로 여기고 생활하였음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효를 통하여 애국애족은 물론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도 익힐 수 있다. 효를 통하여 가족해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효를 통하여 무너져 가는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이를 세계적인 가치관으로 확대하여 인류를 불행으로부터 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효사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하는 가치관으로 재정립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편 우리의 전통과 문화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 효사상과 효문화이다. 이것이 우리 전통사상과 문화로 정착된 것은 본래 우리 원시종교에 부모와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유의 사상이 유교적인 모습으로 승화되어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효사상으로 정립된 것이다. 근래 비판 없이 수용된 서구사상과 문화로 인해 기본적인 윤리를 망각하고 살고 있으며 효사상이 퇴색함에 따라 물질이 중시되고 정신문화가 흐려지면서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물질문명의 서구사조는 우리의 교육전통을 배제하고 엄청난 비윤리적 현상을 만연케 하였다. 학교폭력문제와 고령화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노인문제는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이제 도덕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문화를 선양하고 효도교육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효 교육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랑과 협동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과제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효의 개념은 많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의식은 바꾸어야 한다. 효는 부모의 내리사랑과 함께 쌍무적인 윤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가족애를 바탕으로 화목하고 봉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미풍양속인 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효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새로운 의미를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효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효행의 실천 및 효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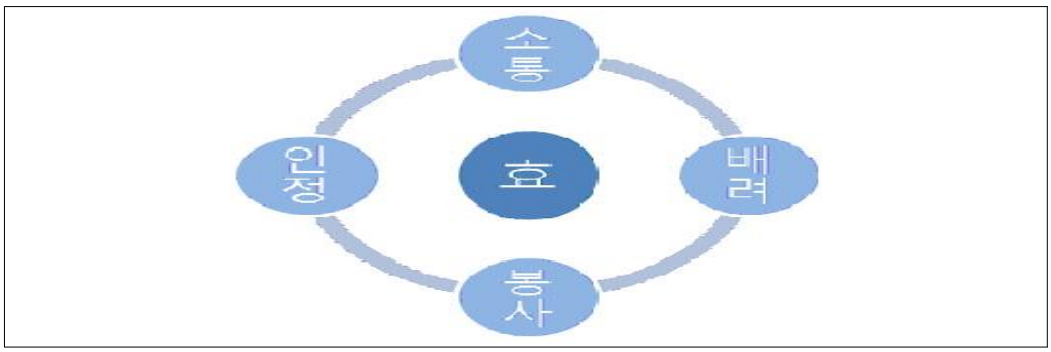
앞에서 서술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사례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효사상이 우리의 고유 전통사상이고 휴머니즘이며, 효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효가 우리

의 역사 속에서 가정이나 사회 및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가족공동체와 마을공동체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덕의 중심축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효사상의 형성이나 효의 참뜻, 효의 중요성과 본질 및 효가 인간애라는 것을 논의하고, 현대적 가치가 있음과 아울러 효 의식제고를 위해 가족윤리·사회도덕·경로효친·인생토대라는 것을 서술하며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효 개념을 정립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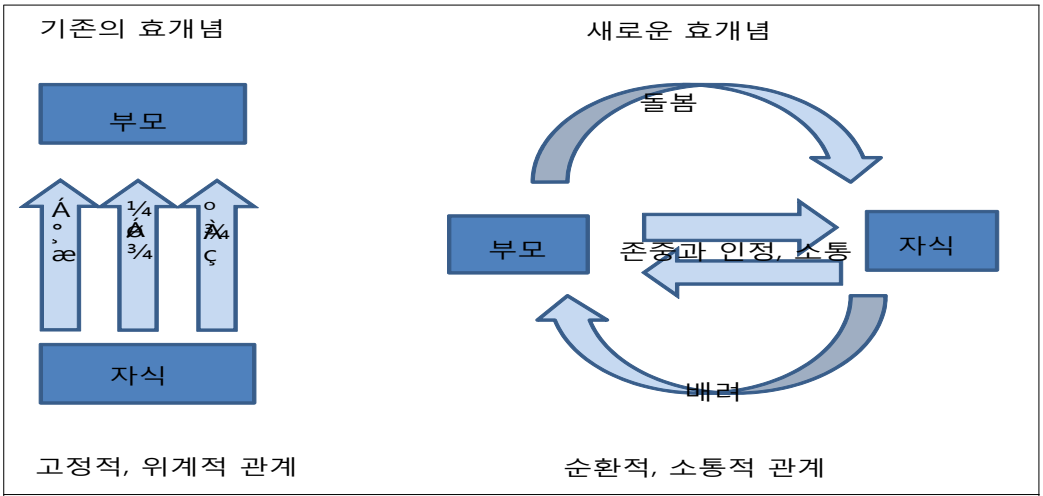
전통적 효 개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소통이 어려웠다. 부모는 자식을 귀히 여기고 자식은 그 부모의 노고를 알고 사랑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효 개념은 효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덕목인 인정, 소통, 배려, 봉사 등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도 고려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즉 새로운 효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림 1> 새로운 효 개념의 기본적 4요소

이를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효 개념이 고정적, 위계적 관계라고 한다면 효의 대중화를 위한 현대적 의미에서 새로운 효 개념은 <그림 2>와 같이 순환적이고 소통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새로운 효 개념 정립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효 개념의 근본정신을 실천하고 대중화 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효문화축제의 실천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및 새로운 효문화콘텐츠개발과 효문화인센티브사업 등도 제시하고저 하였다.

제 2 장

효사상의 원류와 휴머니즘(Humanism)

제1절 효사상의 형성
제2절 효의 참뜻
제3절 효의 중요성
제4절 효의 본질
제5절 인간애와 인간교육

제2장 효사상의 원류와 휴머니즘(Humanism)

제1절 효사상의 형성

교육의 원형은 인류교육의 원전(原典)이라고 할 만한 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인류교육의 역사상 효 교육이 처음으로 비롯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효 교육 사상이 고조선시대의 홍익인간사상으로까지 확충이 되었다. 이 홍익인간사상이야말로 인류가 희망하고 소원하는 인류평화사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효문화는 이미 상고시대부터 장례문화가 발전하였다. 지금도 그 당시의 장례문화의 양상을 고인돌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고시대에 처음에는 사람이 죽으면 섶으로 시체를 두툼하게 묶어서 들판에 눕혀 두었다. 그랬더니 얼마가지 않아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짐승들이 물어다가 먹고 버리고 하여 위생상으로 보나 인간의 도리상으로 보나 그렇게 소홀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상례를 정성껏 모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성묘도 자주하고 제사를 지성으로 모시는 것이 당시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요 기본생활이었다.

오늘날 부안, 고창, 인천, 부여, 공주를 비롯해서 북한의 평양 등지에서 고인돌이 아주 많이 발견되는 것은 효정신이 지극했던 우리 선조들의 효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고인돌 문화가 2천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록되었다.

여하튼 고유사상이 우리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효가 백행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효사상이 교육의 기반이 되었고, 문화와 종교 제반의 모든 일들이 효정신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를 유교사상으로 전이시켰으니 세계적인 유교사상의 뿌리가 곧 우리의 고유사상이요, 효사상이다. 그래서 교육의 원뿌리가 바로 효인 것이다.

한마음, 한뜻, 한핏줄, 한줄기, 한겨레, 한뿌리, 한조상, 한나라, 한마음, 한몸, 한민족, 조국은 하나, 이러한 구호는 모두 '하나'를 추구하는 사상으로 우리 동이족의 문화이다. 이러한 새싹은 이미 상고시대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추구해왔던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아래 또 홍익인간을 세계적인 교육이념으로 조선을 개국하여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동방예의지국으로 인정받고 자부하면서 살아 왔다.

이처럼 외래의 어떤 종교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상고시대에 무교(巫敎)와 선교(仙敎) 및 효와 예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민족주체가 확실히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문헌상으로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중국으로부터 유학이 전래되어 같은 해에 국립대학인 태학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그 이전에 유학(儒學)이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고구려의 태학에서는 오경(五經) 속에 내재한 공맹(孔孟)의 효를 경학공부(經學工夫)를 통해서 익혔다고 볼 수 있다.

백제는 왕인이나 오경박사들이 일본에 유교경전을 전한 것이라든지, 개로왕의 간청에도 도미(都彌)의 처 을씨(乙氏)가 정절을 지킨 것은 유명한 전설로 전해지고 있거니와, 나당연합군에게 패망할 때에 삼충신(三忠信)의 충의와 낙화암에서 삼천궁녀의 합동죽음 등을 볼 때, 평소에 효정신이 확고하였기에 살신성인으로 대처하였던 것이다.

백제인들이 학문하기를 좋아하여 유교경전 속의 효사상을 많이 익혀서 평민들을 이끌었고, 효행실천을 기본으로 삼았다.

신라는 화랑도가 국력으로 결집되어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 682년(신문왕 2)에는 국학(國學)이 세워져 국책교과로 『논어』와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인효교육(仁孝敎育)에 중점을 두었다.

고려도 992년(성종 11)에 신라의 국학을 계승하여 국자감(國子監)을 설립하고, 『논어』와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인효교육을 하였다. 그 뿐 아니라 국법을 통한 효교육 진흥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평소 부모에 대한 효

관념이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로 이어졌다. 이러한 효도의 양상은 유교경전교육의 결실인 것이다.

조선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리학인 방향설정에 주력하였다. 지도층은 물론 민중에 이르기까지 우선 생활양식부터 성리학에 따른 생활양식으로 파급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조선은 유교가 최고도로 발달한 나라로 이 무렵에 성리학의 정초가 세워지고 정치는 덕치가 강조되고 인간의 윤리가 매우 강조되었다. 효를 축으로 충(忠)과 열(烈)을 가치체계로 하여 정치와 교화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오늘날 산업화, 민주화, 과학화, 세계화 시대를 거치고 있으면서 당면한 우리의 중요한 중심과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첫째는 가정의 안정이다. 가정은 국정의 기본인데 지금 가정의 위기가 닥쳐왔다. 가족이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오늘날 교육의 본질이 크게 무너지면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 효행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서로 믿고 돕고 함께 즐겁게 사는 화해사회(和諧社會)를 이룩해야 한다. 성폭행이 난무하고,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노인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혼란한 사회를 하루속히 안정시켜야 한다. 그 다음이 전 인류가 희원하는 인류평화와 동서화합이다.

세계 속에 한국인으로 오롯하게 살려면 5천년 역사를 통관한 한국인의 효사상과 효문화를 이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다.

유교가 최고도로 발달한 조선조 중세기의 율곡은 국정의 기본인 가장 바람직한 가정(正家)을 위함에는 “효도하고 공경하는(孝敬)” 것이 제일이라고 보았다.

가장 한국적으로 재정립된 효사상과 효문화를 발전시켜 해체위기에 직면한 가정을 안정시키고 빈부격차 등 서로 간에 갈등과 불화와 이질화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화해사회를 이루며 더 나아가서는 동서가 화합되게 하고 전 인류가 갈망하는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이상으로 효교육의 역사를 요약하면, 첫째로 환국(桓國)의 환인(桓因)으로부

터 비롯된 효 교육이 환웅천왕을 거쳐 단군왕검에 의하여 최고도로 성숙케 한 효가 한사상의 형성과 함께 효 교육사상이 교육이념이요 건국이념이요 통치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이념의 핵심인 효가 인류의 평화사상이기도 한 홍익인간 사상은 외래의 사상이나 종교의 유입 없이 아주 순수하고도 고유한 우리의 효 사상이다.

둘째로 우리의 고유경전으로 토대를 삼고 우리의 문자인 녹도문(鹿圖文)이 모체가 되어 형성된 한자를 통해 이룩된 유교를 공자가 집성하고 종합· 정리 및 체계화하여 논리를 전개한 효사상을 삼국시대에 수용하여 우리 고유사상의 기틀 위에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교육사상이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 중기에까지 이어져왔는데 국내는 물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셋째로 고려말에 이르면서 원나라에서 전래된 이른바 주자학(朱子學)은 새로운 효사상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주자학적 효사상은 3차적인 효사상이다.

조선시대 초에는 본격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사대부, 서민, 그리고 여자교육을 위한 효행윤리 수양서로서『소학』과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국가정책으로 가르쳤다.

따라서 조선시대 지배계급인 신진 주자학자들은 『소학』 교육에 비중을 높인 교육을 하고, 자녀교육은 물론 자신의 생활도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였다. 주자학의 정착에 따른 효사상을 실천한 것이다.

교육에서 효를 중시하였음은 절대적이었는데 각각의 학교에서 마찬가지였지만 범국민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교화정책을 폈다.

세종대왕의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정조의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는 정치와 교육이 일치되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즉위 10년 9월에 진주사람 김화(金禾)가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사건의 보고를 받고서 임금인 내가 덕이 없는 탓이라고 탄식을 하였다. 세종대왕은 판부사 허조(許稠)가 법을 개정하여 엄하게 할 것을 상소하였다. 왕은 죄를 처벌하는 엄한 법만으로는 아니 된다고 하시면서 신하에게 효행의 풍습을 널리 펴서 모든 백성들이 항상 읽고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실천하면 누구나 다 효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직제학 설순(偰循)에게 고려시대 『효행록』과 같은 책을 간행하여 무지한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라고 명을 하였다. 그러면 악폐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세종대왕은 지금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화라고 하면서 중국의 역사상 가장 모범된 충(忠), 효(孝), 열(烈)을 가치로 가장 모범된 사례를 표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서도 똑 같은 기준으로 선별하여 이에 포함시켰다. 왕의 지시로 세종 14년에 설순이 집현전 학사들과 고려 때의 『효행록』을 증보하여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삼강행실도』는 한자나 한글을 모르는 서민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편의 그림을 넣어서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본문 내용을 한글과 한문으로 요약하고, 시도 지어 정리하여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세종대왕은 사대부, 서민 그리고 여자에 이르기까지 효행교육을 위하여 누구나 알아야하고 가르쳐서 실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런 우리 고유의 효행교육과 효행문화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조선조의 윤리와 도덕의 기틀을 바로잡고 가치체계를 세워 정치와 교육의 골간이 되게 하였었다.

오늘날 서구사상과 외래종교로 인하여 우리의 교육의 뿌리가 많이 뽑혔어도 그나마 아름다운 풍속이 남아 있고, 이만이라도 한 것이 우리 고유사상의 바탕 위에 세워진 공자의 인효교육(仁孝敎育)을 수용한 결실로 도덕의 힘이라 하겠다.

제2절 효의 참뜻

부모는 자녀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서는 대개 자기희생도 감수한다. 자녀가 병이 들어 아프면 부모도 함께 아픔을 느낀다. 심지어는 그 아픔을 대신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자녀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자

녀가 울면 함께 운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 의해 자녀의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는 것이다. 어린이의 성장과정은 이처럼 상처받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성장해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에 나가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그럴수록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긴장해야 하는 피곤함이 쌓인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대로 경쟁상대가 아닌 사람, 끝까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다. 부모를 만나면 그 동안의 긴장이 다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부모의 존재를 더욱 필요로 한다.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집의 자녀일수록 부모의 존재가 더 필요하다.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친구를 좋아한다. 친구는 늘 함께 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도 엄밀히 말하면 라이벌이다. 함께 같은 상태로 있을 때는 좋지만 똑 같은 길을 가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잘되고 하나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만약에 신장에 병이 들어 이식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신장을 선뜻 기증해 줄 친구를 찾기란 흔하지 않다. 아마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는 다르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를 인식한다면 평소 귀찮아하기도 했던 부모의 잔소리 정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 이를 이해한다면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가출해버리는 어린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의 보루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안다면, 사람은 누구나 그 부모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노력이 바로 효다. 다시 말하면 효란 '부모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자녀의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효란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한 것이다.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라고 하면 효라고 할 수 없다.

부모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모와 한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살아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 있기만 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뜻을 받들고 따라야 한다. 따라서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수렴된다.

효의 첫 번째 실천내용은 부모가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다.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 건강을 잘 보살피는 것,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부모의 몸을 봉양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케 하여 부모로 하여금 오래 사시도록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효가 될 수 없다. 효도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이므로 일방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건강하고 해드리고 오래 살게 해 드리는 것만으로는 효도가 될 수 없다.

부모에게 봉양만을 잘해서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 해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효도가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렇다면 효도는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효는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본의식(報本意識)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효의 목적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바로 효의 내용이 된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따름으로써 부모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모의 몸만 받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효가 아니다. 효란 부모의 뜻을 받들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다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흥분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무조건 따른다면 부모의 욕심이나 흥분했을 때의 감정을 따르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 중에서 본마음과 욕심을 변별하여, 본마음인 경우에는 따르고, 욕심인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부모가 흥분하여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본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을 효라 하여 몽둥이를 맞다가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본마음을 회복했을 때의 부모는 몹시 슬퍼할 것이다. 그것은 큰 불효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잘 변별하여 회초리로 때릴 때는 종아리를 걷고 맞는 것이 효이지만, 몽둥이로 때릴 때는 도망을 가서 피하는 것이 효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뜻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여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참마음이 아니라 욕심이다. 부모의 참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자기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과 후손을 낳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참마음을 따르는 효자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자이다.

자녀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은 부모가 무엇보다 먼저 바라는 바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바라는 바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모든 정성과 물질을 바치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크게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자녀가 잘 되는 것만으로 다시없는 보람을 삼을 뿐이다. 그러기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 어느 나라의 부모들보다 앞설지언정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요, 미래요, 희망이요, 절대적인 신앙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과거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효의 윤리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들에 의하면 효는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윤리이고 따라서 미래에 속하는 자녀는 경시되고, 과거에 속하는 부모는 중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효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데서만 가능하다. 효의 참뜻은 부모의 뜻을 받들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다만 효에는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도 있고, 진정한 효와 사이비 효가 있을 수 있다.

제3절 효의 중요성

우리는 지금 IMF 체제가 아니더라도 진작부터 위기에 빠져있다. 말하자면 그간 진행되어온 또는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산업사회화 내지는 정보사회로의 탈바꿈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의식구조가 아주 급격하게 소멸되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도의 산업사회에 적합한 서구식 핵가족제도가 우리의 새로운 현대적 가족제도로 등장하게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보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등장하여 계속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가령, 노인문제의 증대라든가 청소년문제의 심각성, 핵가족제도로 인한 인간관계의 편협성과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 내지는 쇠락,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풍조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 우리의 가족 및 사회공동체의 기저를 뒤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수 천 년 동안 우리의 인륜질서를 유지해 온 전통적인 윤리·도덕과 그 가치체계가 방향감각을 크게 잃고 말았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스스로의 행위를 이끌어 갈 윤리적·도덕적 좌표를 거의 상실해가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작금의 자기중심주의 또는 정신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소외와 정신적 가치의 상실 및 지나친 경쟁논리와 업적주의의 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윤리덕목을 내세워, 자라나는 새세대 즉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부지런히 교육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역시 가정이므로, 효라고 하는 윤리를 앞으로도 우리의 기본생활윤리로서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효는 사람이면 실천해야 하는 기본상식이다. 효행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러므로 효행은 곧 사랑의 실천이다. 사람이라면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기본이다.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한다. 효도하면 인간이 착해진다. 효도하면 인간이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바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효행교육은 인성교육의 최선이다.

제4절 효의 본질

근대사회에서 효라는 도덕관념과 규범은 과거 가부장적 봉건사회에서 상하의 지배와 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유지하였던 낡은 논리라고 비판되어졌다. 사실 효는 중세 봉건국가의 이념으로서 기능하면서 그러한 부정적 측면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효정신이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암흑시대에 국한되어 기능하고 말 것에 불과한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그 본질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효는 부모자식간의 친밀한 감정을 중요시하며, 또한 부모자식간의 친밀한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효경』에 효에는 시작과 완성의 단계가 있다고 했다.

첫째, 효의 시작은 신체와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상하지 않음이라고 했다. 그 의미는 자기가 온전하게 받은 것을 온전하게 보존함을

뜻한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의미는 이기적인 애아주의(愛我主義)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이의 생명과 삶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로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에의 의지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둘째, 효의 완성은 입신행도(立身行道)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겨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모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제된 자가 사회적으로 낙오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도를 행함으로써, 부모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본뜻이다.

자신의 인생과 가정 국가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그 결과는 자신만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몫이다. 부모의 바람과 가르침이 자기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효는 부모에 대한 공손이나 봉양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기세계를 개척하고, 사회존재로서의 인간사명을 다한다는 뜻을 지닌다.

이러한 효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보편적인 인류애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효정신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반인 유교의 인(仁)사상은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휴머니즘(Humanism)이다. 그러나 인류애와 인간존중의 사상은 가정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에서 발단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유학에서 효는 모든 인간행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인을 인간의 진정한 주체성이자 사회의 원리로 제시한 공자(孔子)는 “효와 제(悌)는 인을 행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가족관계가 부자자효(父慈子孝)와 형우제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장 가까운 혈연에 대한 사랑은 내면의 가장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까운 혈연을 사랑할 수 없다면 보편적인 겸애의 사랑은 실질이 결여된 허구가 된다는 것이다.

효는 일방적인 절대복종이나 성대한 물질 봉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에서 우러나오는 충심과 성심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며,

순수한 감정과 정서에 터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인류애로 나아가는 진리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효를 '왜' 해야 하며 그 근본 원리는 어떠한가라는 원리의 문제보다, '어떻게' 효를 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효를 행할 수 있게 하는가? 라는 실천과 현실적용이 중요한 문제이다. 효가 한국 전통문화의 유산이거나 과거에 소중하게 여긴 유학의 핵심개념이기 때문에 효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또한 효를 행하는 이유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행하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제5절 인간애와 인간교육

한국사회의 발전기반은 당연히 건전한 민주화와 고도의 산업화가 달성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그 본뜻을 살펴 본 바와 같이, 효사상은 과거 봉건사회의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측면과 효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첫째, 산업화와 효와의 관계이다. 산업을 발전시켜 부를 확대하는 일은 현대인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부모와 자식을 봉양하고 양육하는 문제는 풍요한 물질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빈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건전한 생리적 욕구를 넘어선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풍요가 아니오, 부모와 자식을 봉양하고 양육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풍요이다.

그러므로 효사상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도피와 나태와 무능을 질타하고 가정에의 책임을 위해 자기의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촉구한다. 그러므로 산업을 발전시켜 부를 확대하고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효의 정신은 다른 어떠한 도덕개념보다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도덕적인 경제활동을 거부하고 성실과 노력으로 성취하기를 도모하게 한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경제활동과 부조리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자기와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저력이 한국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민주화와 효와의 관계이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화는 근대화의 기반이다. 자신의 생명과 소유 그리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 정치참여와 교육의 기회균등과 법 적용의 공정성 등의 평등에 관한 문제들은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한국의 과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화의 과제와 효사상은 배치되지 않는다.

자기절제와 타인사랑의 인간상은 시대를 초월한 고귀한 것임에 틀림없다. 참다운 자유는 자기절제를 통한 진실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참다운 평등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인격에 의거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는 참다운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의사소통에서 출발하며, 건전한 의사소통은 타인의 불이익을 방관하는 이기심과 기만이 아니라 진실한 자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진실한 자아에 도달하고자 하는 성실함과 그것으로부터 발로한 순수한 정서와 인간애는 충과 효에 내재한 근본 뜻이며, 따라서 근대화의 자유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효를 일방적인 상하의 명령-복종의 불평등관계로 보아서 민주화와 배치된다는 견해는 효의 근본취지를 오인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부모자식의 관계는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인간의 도리와 의리에 어긋나면서까지 부모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릅쓰는 행위는 효행이 아니다. 진정한 효는 민주주의적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체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격의 평등은 효의 전제이다. 효행은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나 규범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감정과 주체적 정서에 의해 행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격은 동등하며, 자기 인격의 주체에서 서로를 대할 때 건강한 효가

된다.

어떠한 인간관계도 그러해야 하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코 어느 한쪽이 주가 될 수 없다. 물론 오늘날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이가 위주가 되는 경향이 문제되고 있듯이, 과거에는 부모 위주의 도덕관을 강조한 것도 사실이다. 자식을 위주로 운영되는 가정이나 부모를 위주로 운영되는 가정은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을 위주로 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함에 부모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대함에 자식을 주로 삼는 것이 자애이며, 자식이 부모를 대함에 부모를 주로 삼는 것이 효이다. 상호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위주로 하는 관계는 잘못된 윤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윤리와 제도는 당연히 타파되어야 한다. 상호간에 주종과 구속의 관계 맺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과 평안함을 걱정하는 관심과 애정의 진실한 상호관계가 '부자자효(父慈子孝)'의 관계이다. 어느 쪽도 의무와 권리를 모두 가진다.

공자는 인(仁)을 최고의 덕목으로 높였다. 인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협동이다. 인을 확대·해석하면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나의 대동세계(大同世界)를 구현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그 인의 바탕이 바로 효와 제(悌)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효제는 인을 이룩하는 근본이다.'라고 말했다. 효는 부모를 사랑함이고, 제는 형제간의 우애이다. 효는 종적인 육친애(肉親愛)이고, 제는 횡적인 육친애이다.

이를 우주적으로 확대한 것이 인류애이다. 종적·횡적 사랑을 국가적으로 확대하면 충과 신이 되고, 우주적으로 확대하면 인과 의가 된다. 이들을 통합하여 인애라고 한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육친애를 확대하여 인간애, 형제애, 인류애, 자연애로 뻗어가야 한다. 그와 같은 사랑의 바탕인 효심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하늘에 의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착한 본성을 계발하

면 누구나 인애와 효도를 따르고 실천할 수가 있다. 효심이 곧 인류애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제 3 장

효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의식의 제고

제1절 가족윤리

제2절 사회도덕

제3절 경로효친

제4절 인생토대

제3장 효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의식의 제고

제1절 가족윤리

유교에서 효는 고래(古來)로부터 부의(父義)·모자(母慈)·자효(子孝)·형우(兄友)·제공(弟恭) 등의 오교(五敎)와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 등의 육행(六行)의 으뜸가는 것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삼강오륜 중에서도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예컨대, 우리의 조상들은 효를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모든 행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효를 덕의 근본으로 생각한 까닭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면 그것이 곧 군자의 길이며, 또 그 사랑이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면 그것이 곧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효란 대개 자식이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효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로부터 시발(始發)하는 것이며, 그 친자지간을 가장 원만하게 하는 질서가 곧 효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아주 자연스러운 도리이며, 또한 본능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이 자연의 도리 중 어버이의 자녀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건만, 자식의 어버이 사랑은 장성해감에 따라 도리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이것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덕의 근본과 인간 본연의 도리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번식과 존속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본능적 충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고 또 이를 도덕적 자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교에 있어서 생명을 시간적으로 영속시키고, 공간적으로 계속 확충시켜 나갈 수 있게 한 도덕의 근본적 자각은 다름이 아닌 효와 충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삶을 아득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로 연결시켜 주는 근원적

생명의 의지가 유교에 있어서는 바로 효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교의 효는 과거와 미래를 현대라는 실재에 접속시키는 공능(功能)이며, 모든 생명체들이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으로서 지속력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교의 효사상은 생명을 보전하는 원천적 감정에서부터 이해되어야 하고, 또 흔히 효사상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보은으로부터 이야기되기도 한다. 인간이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니 민족이니 하는 대아의식(大我意識)을 가지며, 역사적 전통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효사상을 가정으로부터 이웃, 이웃에서 사회·국가·세계로 확대할 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넓은 의미의 행위질서라면 효사상은 그 도덕의 핵이요, 이는 바로 모든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영생의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경우 모든 것을 국가와 사회 위주로 생각하고 개인과 가정의 영역이 파괴되어 가는 현실에서 효사상의 기능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이 모든 것의 근본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처럼 진지하고 순수한 사랑은 없다. 거짓 없는 참 사랑은 효에 입각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이기적일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으며 탐욕적일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랑에 이익이 바탕이 되면 오래 갈 수가 없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인류의 항구적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효를 부정하고서는 인류의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효의 긍정은 인간의 생명과 가치의 긍정이고, 더 나아가 효의 긍정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긍정이고, 최종적으로 효의 긍정은 항구적인 인류평화의 긍정이다. 효에는 이러한 보편타당성의 긍정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지선의 가치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러한 효의 보편정신이 부정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효의 원리는 외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순수한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조하는 효는 단지 천성으로만 머무는 협의의 효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순수하고 진지한 사랑은 가정애·사회애·국가애·인류애로서의 확충을 의미하는 효이다. 효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성이지만 당위로 강조되어야 하며,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응당 효도 소중히 여겨져야 한

다.

이처럼 소중한 자기생명의 긍정에서 효가 긍정되며, 효의 긍정에서 효의 내용이 긍정될 수 있다. 즉, 자기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이 직접 생명의 근원이 되어 후대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 우리의 삶이 시작된 처음을 돌이켜 보면, 가장 처음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부모님이다. 우리가 맨 처음 접하는 사회도 가족이라는 공동체이다. 이처럼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의 최소 단위이고, 부모님은 그 시작이 된다. 우리의 삶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시작된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엿하게 독립된 인격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근본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다. 부모님은 마찬가지로 그 분들의 부모님에게 근본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에게로, 나아가 인류의 조상에게로, 더욱 나아가 생명의 근원에게로 우리의 생명은 잇닿아 있다. 미래를 생각해 보자. 우리의 삶은 곧 우리 자손에게로 끝없이 이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무한한 과거와 미래를 이어 나가는 매우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르기 마련이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 부모님은 온 마음을 바쳐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질서라면, 내 질서는 그분들께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그것은 효도이다. 효란 결국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자식이니까 맹목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 정신으로 효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옛날의 성인들은 부모에 대하여 효성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써 천지자연을 대한 것이다. 천지도 또한 그 부모와 근원을 같이하고 있는 이상, 인간의

지성지덕(至誠至德)이 천지우주에 통할 수 있다. 생이 있는 자도, 생이 없는 자도, 다 함께 그 덕에 감격하여 희열과 만족을 실감하는 것이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한다. 이것을 순(順)이라고 하는 것이다. 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할 수 있으면, 상하의 순서가 분명해져, 서로 기쁜 마음으로 그 순을 지킨다. 그리하면 상하가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 천하가 태평해지고, 평화스러운 사회가 성립되고, 정치는 순조롭게 다스려지는 것이다.

동생이 형을 존경하고, 누이동생이 언니를 따르는 것, 이것도 또한 자연이다. 먼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존경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버이의 눈으로 볼 때는 형이든 아우든 다 같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자식들을 다 귀여워하며 평등하게 사랑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장유(長幼)의 사이에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그 법칙에 따라 평화의 도를 강구하려 할 때에는, 아무래도 아우가 형을 공경하고, 동생이 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도리가 될 것이다.

그것을 반대로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부자지간은 어쨌든 형제간의 우애가 점차 엷어져 가는 현대의 인심은 과연 즐거워해야 할 현상일까? 어버이에게는 양육을 받은 은혜가 있지만, 형이나 언니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는가? '형제는 남이 되는 시초'라는 속담까지 있어서 형제간의 순(順)은 날로 어지러워져 간다. 사람에게 어떤 구별을 설정할 때, 그 사람의 재주라든가 학문 따위를 표준으로 삼을 경우, 여러 가지 난점이 개입되므로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장유, 즉 먼저 난 자와 나중 난 자와의 구별로서 경순(敬順)의 도를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이에 만족하여 순종할 수 있다. 결코 습관의 힘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충실히 지켜 가면 상하가 화목하여, 천하는 조용하게 다스려져 간다.

그리고, 『효경』의 다음 구절은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좋을까? "신체의 모든 부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함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효도의 시작이다. 공을 세워 참을 실천한 다음에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빛내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이 말은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값진 삶을 살아 나가라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신체와 나의 인생을 사랑하

고, 의미 있고 값진 곳에 창조적으로 바치라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효란 첫째 손쉬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자기의 신체를 보호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첫째 의무이다. 이 신체는 전적으로 부모의 지체인 것이다. 작게 말하면 모발, 피부의 미소함에 이르기까지 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 된 자는 그것을 손상함이 없이 천수를 다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인 것이다. 그러니 평소 근신하여 신체를 아끼고 보호하여 조금이라도 손상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한 것이다.

또한, 부모는 항상 자식의 병을 근심한다. 내 자식의 병처럼 어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 어릴 때는 몸의 섭생에 주의하여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한편, 항상 자신의 지덕을 연마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몸을 삼가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항상 정의를 따라 내 몸을 욕되게 하지 않고,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사람으로서 뜻있는 생애를 보내고, 국가사회를 위하여 진력하여 후세에까지도 그 업적이 전해질 정도로 이름을 날려 부모의 이름까지 드러낼 수 있다면, 효도를 완벽하게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고, 또 그 사랑 중에서 어버이의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은 없다. 사람이면 누구나 어버이의 사랑과 은공을 감지하게 되며, 은공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저절로 효심이 생기게 될 것이다. 효는 자연 발생적인 인간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효도의 방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 사회에서 효의 근본적인 이치는 도덕적 불변의 절대 가치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효의 범위는 좁게는 부모에게 드리는 성경(誠敬)이고, 공간적으로는 우주와 시간적으로는 과거 및 미래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효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며, 가식보다는 진실을, 과장보다는 소박을, 형식보다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는 현존하는 자아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직접적 근원인 부모, 부모의 근원인 조상, 조상의 근원인 하늘로까지 성경을 확대하는 것이고, 영원한 미래의 후손을 계승하는 것이다.

제2절 사회도덕

동양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매우 강조되어 왔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의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덕의 근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먼저 인간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그 육신의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왔으며, 또한 그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으니, 이러한 자기 생명의 근원을 자각하고 감사하며, 그러한 생명에 대한 긍정에서 효가 시작됨을 밝혀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효의 윤리는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윤리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의 귀중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참된 인간실현의 근본으로 심화되기도 하고, 정치와 교화의 근원으로 확대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인 모든 행위의 근원적인 원리로서 전통적 윤리체계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효의 정신은 자신의 생명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볼 때, 조상숭배와 경천사상과도 결합되어 있다. 자기생명을 공경하고 사랑하자면 그 근원으로부터 생긴 자기를 포함한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부모가 소중하다면 남의 부모도 소중하므로 웃어른을 섬겨야 한다. 즉, 경로와 효친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생명의 근원을 경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효는 경(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효의 본질은 한 마디로 경애라고 할 수 있다. 경애라는 말은 경천애인에서 나온 말로서, 생명의 원천인 하늘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경애사상은 생명의 근원인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경천숭조사상과 결합되어 있고, 생명의 근원으로 생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애 사상과도 통한다.

즉, 경천애인은 애경, 즉 애친경장이 근간이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로효친은 태초의 인간관계인 친자관계가 확대되어, 종적으로는 조상과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는 동시에, 횡적으로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는 가족윤리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윤리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효 윤리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다는 충직성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생활 전개과정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그 의식한 선을 성실하게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꽃피어 난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때, 효윤리는 바람직하게 정립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즉, 효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실천윤리인 것이다.

효의 형이상학적 의미는 무엇보다 애인(愛人)의 정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애인의 정신은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의 존재가 형성될 때에 가능하다. 그런 공동 존재는 너와 나 사이에 진실로 기다려진 응답이 가능할 때에 생긴다. 그와 같은 공동 존재를 유교적 표현을 빌면, '이인(里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진 마을로서의 이인은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마음은 내가 형성하는 최초의 마을과 같다.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인데, 내 마음도 하나의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나와 나 자신과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광장이기 때문이다. 이 대화의 광장이 서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할 때에 그런 마음을 우리는 화목한 마을, 어진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에 나와 나 자신 사이에는 화목이 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경로효친이 발생하는 이인의 공동체는 우선 내 마음이 어진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내 마음이 최선을 다하여 어진 마음에다 중심을 잡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미루어 헤아려 본다.

효는 곧 나의 가정을 이인화(里仁化)하겠다는 정신과 상통한다. 그러면, 효가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인화하려 하는가? 어버이와 조상의 진실한 뜻을 이어서 창조적으로 재생산하고, 늘 근본에 보답하여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 효의 이인적 개념이 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어버이라도 자식에게 바라는 심정은 모두 자식이 착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비는 데 있다.

그래서 어버이의 참으로 바라는 뜻을 이어 그 일을 창의적으로 개발함이 효의 이인적 개념이다. 그리고 경장사상(敬長思想)도 사회를 하나의 어진 마을로 만들겠다는 소신을 뜻한다. 경장사상은 가정의 이인이 사회로 확대된 것이다.

자신이 접하는 웃어른을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은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다. 즉, 나의 마음에서 출발한 이인이 좀 더 크게 확대된 것이다.

천도는 인간의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인륜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천되어 가는 것이다. 효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의 원천으로서 하늘의 길이요, 사람이면 누구나 따르고 행해야 되는 본분이다. 우리의 인륜은 서구사회에서의 계약관계와는 달리 모든 인간관계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다스려진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관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덕으로 하고, 인자함으로 감싸주며, 용서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법과 권리, 권력과 투쟁으로 사회를 유지시켜 가는 관점이 우리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충과 함께 효가 중시되었다.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에서 삼교(三敎)를 포괄하는 우리 고유의 풍류도를 설명하면서 유교를 효와 충의 가르침으로 이해한 것이나,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에서 충과 함께 효가 중시되고 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 등이 주목된다. 또 고구려의 태학이나 신라의 국학 등에서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삼았으며, 백제에서도 상무적 의용성(義勇性)·불교적 계율성과 함께 유교적 충과 효가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인륜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정신은 계승되었는데, 『문헌비고』 학교고에 의하면 성종은 12목에 경학박사를 두게 한 다음, 경학과 효제에 출중한 사람을 보고하게 하여 효를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자감을 두어 『논어』와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삼게 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간행하게 하여, "가정에서는 충효를 전하고 대대로 인경(仁敬)을 지킨다."라는 정신을 고취하였다. 또 성종 때에는 『이륜행실도』를 간행하게 하여, 충과 함께 효를 민중문화의 기틀로 삼으려 하였음이 주목된다. 비록 학교교육은 아니었으나 인륜교육과 덕교(德敎)를 통한 사회교화를 위한 것으로서, 가정교육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뜨거운 교육애와 민중의 욕구에서 나온 산물들이었다. 이만큼 효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국민정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효는 모든 덕목의 으뜸이고 모든 행위의 으뜸이기에, 사회기강의 확립은 효의 실천에서부터 비롯된다. 자기 직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곧 효의 실천이

기도 하다. 효의 참 정신은 사친성경(事親誠敬)에 있다. 그러므로 부모를 받들고 모시는 정신과 행위 없이는 인류에 대한 봉사도 국가에 대한 충도 있을 수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완성도 선조에 드리는 추모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효란 부모를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부모를 섬기는 정신과 행위가 가정·사회·국가·인류에까지 확대될 때, 이상에까지 이르게 되고 인격완성이라는 면으로 귀착되지만, 그 출발은 역시 부모를 섬기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한 부모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한편, 한 자녀의 부모로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부모이면서 자녀라는 말이다. 따라서 자녀의 위치에서 효를 논할 때, 부모에게 드리는 정성을 말할 수 있겠으나 한 부모의 위치에서 효를 논한다면, 자녀에게 주는 극진한 사랑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효도는 과연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개인에 따라서는 효도가 실천하기 극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집이 가난하다 보면 마음속으로는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또, 무지하여 효도가 덕의 근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효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류층의 사람이나 생활의 걱정이 없는 사람이나 학문을 닦은 사람의 경우라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 효이고, 효도를 함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자기를 향한 존경심을 높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쉽게 행할 수 있는 효도를 잊은 채, 부자간에 서로 싸우고 형제간에 벽을 쌓는 꼴을 볼 때, 국가의 장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마저 저주하며, 부모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부모를 원망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에게 불행한 생활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식 된 자는 앞으로 자기도 부모가 되어 자식을 갖고 빈곤에 처했을 경우, 자연히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버이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빈부귀천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생활이 부유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깊은 것이다. 물론, 만 명에 한 명이나 혹은 천 명에 한 명 꼴로 진심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도 천성적으

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필시 자연의 사랑을 차단하는 불행한 외부의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로 본능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 이외의 동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하도록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건만, 어미 또는 아비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외적에 대해서는 죽음으로써 자식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물과 짐승들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으로서 어버이를 경애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찌 인간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겠는가?

설령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몸이 부모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만은 최소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신은 부모의 분신이며 조상의 분신이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과 동일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효의 참뜻은 부모의 뜻을 받들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참다운 효의 실천과 추구는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마와 완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수양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완성으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연결시켜 논의할 때는 그 자기수양과 자기완성이 효이자 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의 극치는 자기완성에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효의 실천지표는 부모에게 드리는 정성, 자녀에게 바치는 사랑, 인류에 대한 봉사, 자기직무에 대한 성실, 자기완성의 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의 실천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효는 인간관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리고 효는 인본주의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효세계에서 보면, 인간 이외의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가치도 인간 위에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교육의 이념은 효의 기본명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리라고 본다. 교육의 최고이념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일이다.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효이니,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주체가 된 교육, 인간이 목적

으로 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절 경로효친

현대적 의미의 효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착한 방향으로 양육하는 것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효는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 사상으로 알려져 왔고, 또 시행되어 왔으므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오늘날 늙으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부모님 그냥 편히 쉬세요.'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이든 해 주십사 하고 부탁 할 때'라고 한다. 부모님이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게 하고, 도덕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그것이 효인 것이다.

이는 곧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의미도 된다. 효자로 유명한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曾子)가 이야기한 효의 3가지 중 첫째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은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효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걱정하시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자녀친구의 부모에게 내게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경로사상인데 내 부모에게 대하듯 남의 부모 즉 노인에게 같은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노인들은 예외 없이 자녀들보다 나은 물질적인 향락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자녀들이 누리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만족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고 견디어 나간다. 그러나 다만 늙었다는 이유나 활동력이 적거나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는 자식들보다 학력이나 특수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로부터 무시되고 소외되는 것만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갖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모든 보람과 희망을 걸고 길러놓은 자녀로부터 소외되어 정신적인 유대를 잃고 방황하게 될 때 노인들은 허무와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

로 목숨을 버리기 까지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우리의 윤리관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효의식에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식이야말로 어떤 신앙에도 못지않은 뿌리 깊고 견고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도 결국에는 어른이 되며 노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교육에 있어서도 이 점을 애초부터 교육해야 한다.

1982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선포한 노인헌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헌장>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敬老孝親)과 인보(隣保相助)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2.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취미·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교육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인들과 노인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에 관한 교육' 그리고 교육적 자원으로서 노인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에 의한 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교육은 궁극

적으로 노인과 성인 그리고 청소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동체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한정란, 2001).

세대공동체 교육은 세대 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서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즉, 학교 및 기타 수업장면에서 세대 간의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연령에 따른 분리와 차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세대 및 여러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의 내용은 행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목표가 달라짐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노인교육은 목표에 알맞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제시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노인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노인교육내용의 예시

학 습 영 역	교 과 목
노 인 복 지	국민연금과 노후의 소득보장, 노인과 보건의료제도, 고용의 안정과 정년, 요보호 노인 대책과 노후보장,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관리와 안전	노인과 건강, 노인에게 많은 질병과 예방, 노인과 식생활, 생활관리와 노동, 노인과 운동, 교통사고 방지 등
취 미 학 습	원예, 공예, 수예, 요리, 연예 등
가정의 인간관계	동거와 별거, 어린이와의 생활조정,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 자녀의 교육, 새로운 가정교육 등
시 사 문 제	사회의 변화, 세계의 동향, 한국의 경제, 지방자치선거 등
법 률	생활법률, 재산과 법률 등
종 교	생활과 종교 등
사 회 활 동	노인의 사회적 역할, 사회봉사와 노인, 어린이회 등의 지도와 노인, 현대 청소년의 이해 등
직 업 생 활	노인과 직업, 각 직종에 필요한 사항 등
노 인 클 럽	노인클럽의 운영, 클럽의 연간 활동계획, 오락 등
종 합 학 습	연수여행, 생활체험 발표, 노인문제, 노인의 교우관계, 향토의 문화 등

각 노인학교에서는 노인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와 장년 및 청소년의 욕구조사를 기초로 경로헌장, 노인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제4절 인생토대

효사상은 과거 봉건사회의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산업을 발전시켜 부를 확대하는 일은 현대인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부모와 자식을 봉양하고 양육하는 문제는 풍요한 물질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빈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건전한 생리적 욕구를 넘어선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풍요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봉양하고 양육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풍요이다.

효사상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도피와 나태와 무능을 질타하고 가정에의 책임을 위해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성취를 촉구한다. 그러므로 산업을 발전시켜 부를 확대하고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효의 정신은 다른 어떠한 도덕개념보다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도덕적인 경제활동을 거부하고 성실과 노력으로 성취하기를 도모하게 한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경제활동과 부조리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자기와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화는 근대화의 기반이다. 자신의 생명과 소유 그리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 정치참여와 교육의 기회균등과 법 적용의 공정성 등의 평등에 관한 문제들은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화의 과제와 효사상은 배치되지 않는다.

자기절제와 타인사랑의 인간상은 시대를 초월한 고귀한 것임에 틀림없다. 참다운 자유는 자기절제를 통한 진실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참다운 평등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인격에 의거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는 참다운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의사소통에서 출발하며, 건전한 의사소통

은 타인의 불이익을 방관하는 이기심과 기만이 아니라 진실한 자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진실한 자아에 도달하고자 하는 성실함과 그것으로부터 발로한 순수한 정서와 인간애는 충과 효에 내재한 근본 뜻이며, 따라서 근대화의 자유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효를 일방적인 상하의 명령과 복종의 불평등관계로 보아서 민주화와 배치된다는 견해는 효의 근본취지를 오인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부모자식의 관계는 상하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인간의 도리와 의리에 어긋나면서까지 부모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릅쓰는 행위는 효행이 아니다. 진정한 효는 민주주의적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체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격의 평등은 효의 전제이다. 효행은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나 규범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감정과 주체적 정서에 의해 행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격은 동등하며, 자기 인격의 주체에서 서로를 대할 때 건강한 효가 된다.

어떠한 인간관계도 그러해야 하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코 어느 한쪽이 주가 될 수 없다. 물론 오늘날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이가 위주가 되는 경향이 문제되고 있듯이, 과거에는 부모 위주의 도덕관을 강조한 것도 사실이다. 자식을 위주로 운영되는 가정이나 부모를 위주로 운영되는 가정은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을 위주로 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함에 부모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대함에 자식을 주로 삼는 것이 자애이며, 자식이 부모를 대함에 부모를 주로 삼는 것이 효이다. 상호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위주로 하는 관계는 잘못된 윤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윤리와 제도는 당연히 타파되어야 한다. 상호간에 주종과 구속의 관계 맺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과 평안함을 걱정하는 관심과 애정의 진실한 상호관계가 부자자효 관계이다. 쌍방이 의무와 권리를 모두 가진다.

우리 고유의 효행교육문화를 계승해야 하는 이유는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 윤리와 도덕의 근간(根幹)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조 제왕(諸王)들은 『소학』과 『삼강행실도』를 학교의 필수교재로 하여 사대부, 서민 그리고 부녀자에게 수기(修己)의 이념으로 가르쳤다.

다시 말해 인생의 토대로서 인간이 그 타고난 착한 본성을 저해하는 물질적인 욕심을 끊고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고, 성현과 군자의 위치로 지향하는 인격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자녀에게 성현과 군자에 이르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소학』의 오륜사상과 『삼강행실도』의 충신, 효자, 열녀의 효행을 가르친 것이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인간관계의 도리이다. 부자유친의 근간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를 습관화시켜 스스로 깨달아 천성에 이르게 한다. 효행의 내용과 실천방법도 다양하다.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도리로써 다음 여섯 가지 효를 들었다.

평소에는 공경을 극진히 하는 도리, 봉양할 때 즐거움을 극진히 하는 도리, 질병에는 근심을 극진히 하는 도리, 상사(喪事)에는 슬픔을 극진히 하는 도리, 제사에는 엄숙히 하는 도리 그리고 공손스러운 몸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여섯 가지를 갖춘 뒤라야 부모에게 효행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평소에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이다. 이 효의 내용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나갈 때는 갈 곳을 고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나가서 한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중대한 효라 했다.

효는 평범한 일 같으나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방법으로 현대적으로도 계승할 가치가 있다. 이처럼 부모의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 편하게 모시는 마음, 즉 효행이란 평소에 부모를 옆에서 모시고 불편함이 없게 해 드리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도 얼굴을 보여 드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변동하는 건강과 심리상태도 동시에 살펴 여기에 적중(適中)하게 모셔야 한다.

둘째는 자식이 부모를 즐거운 마음으로 극진히 봉양(奉養)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효행은 양지(養志)와 양구체(養口體)로 구분한다. 양지는 정신적 봉양을 뜻하고, 양구체는 물질적 봉양을 뜻한다. 양지의 효행은 효자가 부모를 봉양함에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며, 그 뜻을 어기지 않으며,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양구체의 효행은 그 잠자리를 편하게 해 드리며,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그리고 용돈을 드리거나 효도관광 등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참된 효행은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정신적으로 부모의 뜻을 섬기는 양지(養志)가 큰 효이다.

셋째는 부모의 병환에 자식 된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이다. 부모가 병 중에 있을 때는 근심하며, 오직 부모의 병만을 생각해야 한다. 자식은 병에 대한 최소한의 식견과 간병(看病)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효의 실천은 오늘날에도 그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부모에게 간(肝)을 이식을 해 주는 것과 같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극진한 효가 이어지고 있다.

넷째는 초상(初喪)에는 그 슬픔을 극진히 하여 애도(哀悼)의 정(情)을 다하는 도리이다. 이러한 장사(葬事)의 예절은 공자의 말씀으로 선거상(善居喪)이라 하여 부모의 상의 극진히 하는 예절이다.

공자도 그 효도를 잘한 것만을 말하지 않고, 오랑캐의 풍속을 잘 변화시킨 것도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부모를 섬기는 것은 문화를 초월하는 것으로 생활교육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에 미처 다하지 못한 봉양을 뉘우치는 효를 말한다. 제사에는 엄숙하게 부모가 살아 계신 것과 같이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그는 선친(先親)을 모시는 예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제사는 반드시 부부가 직접 지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제일(祭日)을 맞이함에는 정성스럽게 해야 하고 극진히 해야 하며 제일을 앞두고는 행실을 가지런히 하고 재계(齊戒)하는 날에는 그 부모의 거처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웃음과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생각하며, 그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즐기시던 것을 생각하면 3일 만에 그 부모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여섯째는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가짐이다. 여기서는 자기 몸을 잘 공경하는 것과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가짐도 효로써 여겨 중시하였다. 이에 대한 효행은 자신을 극복하여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람은 마음속에 일체의 잡념을 없이 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엄숙히 하여 말은 삼가해 심신을 닦는 것이 효가 되는 것이다. 또한 효행은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이나 봉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간언(諫言)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식의 간언이 부자관계에 있어서 자식의 주체성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인격을 본위로 한 친애의 정신으로 보아야 한다.

나의 부모에 대한 성실한 마음이 남의 부모에게까지 미치고, 이것이 인생의 토대가 되어 인류애(人類愛)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제 4 장

효문화축제 및 효행상 운영사례

제1절 효문화축제 운영사례
제2절 효행상 운영사례

제4장 효문화축제 및 효행상 운영사례

제1절 효문화축제 운영사례

1. 대전 중구 효문화뿌리축제

대전광역시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가 2010년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효문화 뿌리축제를 대전의 대표축제로 브랜드화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인근의 오월드, 아쿠아월드, 유성온천 등과 연계시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전 중구를 효의 상징 및 문화관광 도시로 이미지 형상화하고 있다.

전국 문중과 유림을 통해 효를 테마로 한 효문화 뿌리축제로 발전시켜 2012년 축제장에서는 17만명이 참여하여 '호패로 통하라!, 떴다! 포졸, 꼬마훈장, 역사 인물 코스프레'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겼다.

한시백일장, 문중문화체험, 매사냥・단청장(丹靑匠)・초고장(짚풀공예) 등 무형문화재 전시체험, 마당극 형식으로 풀어쓴 '이야기, 관혼상제' 등은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뿌리가요제, 서당체험, 뿌리 백일장・사생대회, 선유놀이(야간 전통뱃놀이), 레이저쇼,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도전! 2012 효 세족식', 대전의 특색있는 문중 이야기를 극화한 '미륵원 이야기' 등도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관혼상제 시연 및 가족어울림한마당 등 전통가족문화와 효 정신을 반영한 핵심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문중퍼레이드 및 문중체험관 운영내실화 등 문중문화체험 및 문중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대학생전통예술동아리공연, 퓨전음악제 등 젊은 층을 위한 세대 공감 프로를

<표 2>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뿌리축제 프로그램

개막행사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만성산 뿌리 내림식	대전뿌리문화축제 공모전 최우수작	성씨비 조형물
문중퍼레이드	문중 및 퍼포먼스단, 취타대 입장 등	주무대
식전공연	한국전통공연 등	
개막식(퍼포먼스)	개막 퍼포먼스 등	
주제공연 - 성씨의 탄생, 開天	제4회 대전뿌리문화축제 주제공연	

전시행사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만성교 소망등불	만성교 일대 등불전시	만성교
세계의 명문가 전시	명문가의 유래와 계보 등	전시부스
대한민국 성씨 유래 전시	누구나 알기쉬운 대한민국 성씨 유래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한민국 봉사의 대명사	
뿌리 포토존	역사를 빛낸 우리 조상 포토존	뿌리마을

체험행사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문중문화체험	문중문화체험, 전통 및 선조이야기 전시	뿌리마을 체험관
대전무형문화재관	초고장, 단청장, 매사냥 등	
뿌리건강관	어의진료, 한방체험, 수지침 등	
뿌리마을 주막	뿌리마을 내 전통주막 체험	
뿌리체험관	문중투어&뿌리인물 스탬프 찍기,전통의상인형 만들기, 전통장난감 만들기, 성씨 페이스 페인팅, 포토 더렉터 등	
전통문화체험관	서당체험, 관혼상제 전시&체험, 꼬마 훈장님, 대장간 체험 등	

공연행사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뿌리 국악 한마당 - 우리 문중 춤사위	우리나라 전통 국악 공연	주무대
이정애 무용단	문중의 특색있는 춤사위	
뿌리사랑 음악회	세대별 친근한 레퍼토리의 연주	
어린 뿌리들의 지저귐	어린이 합창단 공연	
창작극 "미륵원 이야기"	문중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뿌리마을
이야기 관혼상제	뿌리도사와 함께하는 이야기 관혼상제	
대전대표민속놀이	부사칠석놀이(중구), 들말두레소리(대덕구), 풍물놀이-웃다리농악(서구)	
퍼포먼스 연출단	뿌리 연장수, 떴다! 포졸, 역사인물 코스프레, 팔각정 선비 마임	뿌리마을, 팔각정
선유&레이저쇼	수상 환타지 퍼포먼스	유등천
어린이 충 인형극	충을 주제로 한 어린이 인형극	수변무대

대회/문중행사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한시 백일장	옛 선비들의 과거시험 재현	주무대
대학생 뿌리가요제	대학생 가요 경연대회	
문중 명량운동회&어울마당	문중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명량운동회 및 장기자랑	
뿌리찾기 걷기대회	청소년을 위한 걷기대회	뿌리공원

부대행사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족보박물관 특별전	한국족보박물관 특별 전시	한국족보박물관
뿌리 백일장&뿌리 사생대회	초등부, 일반부 대상 글짓기 및 사생대회	뿌리공원
연계관광 상품전	대전 연계 관광 상품 안내	

확대하고, 구별(區別) 먹거리 장터운영, 지역무형문화재의 전통예술제 등 범시민 참여프로그램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주한외국인초청 팸 투어, 캐릭터 상품판매, 연계관광 상품운영 등으로 범시민적 화합도모, 뿌리문화도시로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있다. 전국 효문화축제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된 축제로 최고 수준과 최대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인터넷검색을 통해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음).

그러나 본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적, 질적 발전/ 선택과 집중/ 타 지역 축제와의 경쟁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2. 곡성 심청효문화축제

효(孝)를 테마로 한 전남 곡성군 심청효문화 대축제(섬진강 기차마을 일대)가 11년째를 맞아 곡성 심청축제에서 심청 효문화 대축제로 개명하였다. 가족노래 자랑, 마당극 곡성 심청전 공연 등 15개의 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느끼며 실행하는 심청 효행체험과 88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한 효 잔치, 노인들에게 무료 개안 시술을 해주는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행사 등을 전개하고 있다.

공양미 삼백 석 모으기 저금통 5000여 개를 제작 배포하며, 증기기관차와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 기차마을 주변에 조성된 코스모스 길, 장미공원의 가을 정취 등을 만끽하게 한다. 지역 관광자원, 문화자원, 예술자원, 체육자원 등을 총 망라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사 프로그램(6개광장 74개 행사) ; 열린광장(22) – 개막식, 곡성 여성극단 심청 마당극, 효녀심청 건강체조경연대회, 뺑덕이 8도 사투리 경연, 장애우와 풍물놀이, 관광객·가족과 함께, 심청골 효가요제, 설장구공연, 다문화가족 한마당, 심청골아이돌 내가 최고, 심청골 문화한마당, 심청골효행잔치, 대한민국 명인·명무전, 심청가족 사랑음악회, 가족사랑 7080 효콘서트, 나는 어린이 가수다, 8도 심봉사·뺑덕이 품바공연, 도깨비 사람들의 공연, 동방신기 비천서커스, 가족 한마음 노래자랑, 난타공연, 무형문화재 공개발표(곡성중동농악)가 있다.

효행광장(10) - 효행관운영, 공양미삼백석모으기, 심청캐릭터퍼포먼스, 짚풀공예 작품전시체험, 명품『효가훈』받기, 아나바다 바자회, 마당극 '곡성심청전', 런던플라워쇼'황지해'작가 작품사진전시, 섬진강 도깨비 효체험학습마당, 효비누만들기체험, 장미와 함께, 한밤의 음악여행), 효녀심청백일장대회, 천적곤충관 엿보기, 장미시, 격언, 노랫말 전시 등이 있다.

향기광장(9) - 장미하트, 꽃마차 포토존, 분화 장미전시관운영, 기차'삿'추억남기기, 기차인물스케치, 사진전시전

체험광장(15) - 토끼가 술래래요!, 동물농장에서 찾으세요, 클레이 &종이로 만드는 세상, 장미불펜, 코사지 만들기체험, 농경문화전시 & 옛날농사일체험, 장미향수&비누만들기, 장애우작품전시체험, 한지공예체험, 드림랜드놀이체험, 춤추는 분수세례체험, 장미 염색체험, 압화체험, 페이스페인팅, 전통민속놀이게임, 생태토피어리 만들기, '효'만큼 달콤한 초콜릿 만들기 체험

기차광장(4) - 심청캐릭터와 함께해요!, 추억의 증기기관차타기,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영화세트장 여운 남기기, 가족사랑으로 극복한다, 심봉사철로걷기체험, 가족이 힘을 합쳐요!, 레일바이크 타기

소통광장(14) - 효녀심청전국어린이예술공모전, 효녀심청유치부사생대회, 농특산물전시판매, 향토음식판매, 사랑의 프로포즈! 장미꽃판매, 심청골먹거리장터, 심청전국마라톤대회, 심청정구대회, 심청배볼링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심청전국배드민턴대회, 심청 전국남녀궁도대회, 심청야구대회, 심청게이트볼대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본 축제의 단점은 효문화와 큰 관련이 없는 행사까지도 끌어들여 너무 백화점식 나열을 하는 축제행사의 느낌을 주고 있다.

3. 수원 화성효문화축제

수원 화성효문화축제는 10월 6일과 7일에 융·건릉과 용주사 일대에서 펼치는 정조 효문화 축제로서 조선시대 대표 효자 정조대왕을 기리는 행사이다.

정조대왕 능행 행차 재현, 정조 효백일장, 정조 효서예휘호대회, 배수연, 승무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본 행사의 단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면 행사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방향이 많이 달라지면서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효문화축제를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어떤 자치단체보다 일찍 시작하였고, 세계효문화축제로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각종 자원과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4. 김포 효문화축제

김포 효문화축제는 초등학생들이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리며, 최고령 남·여 어르신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헌수 행사를 진행한다. 금년에는 합창, 댄스스포츠, 민요, 째즈댄스. 동화구연, 하모니카, 코메디 공연 등 803명의 참석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 및 기념품 전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밖에 예전 교복착용 사진촬영, 떡메치기, 투호, 고리, 제기차기, 메이크업, 네일아트, 이·미용, 핸드폰 고리 만들기, OX퀴즈, 가훈써주기, 고혈압 및 당뇨검사, 솜사탕 증정 등이 있다.

본 행사의 단점은 아직 초보적이고 소규모이며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아마추어 느낌이 많이 나는 축제 분위기이다.

5. 강서 효문화축제

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2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7회 강서 효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기념식에 이어서 사랑해 말순씨(영화), 축하행사(노래천국), 축하공연(외부공연), 휴먼코미디(연극), 축하공연(바닥소리 외), 종이접기작품전시회, 효사랑바자회 야외게이트볼장, 영화, 노래공연, 연극 등이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하는 효문화축제로서 동네 경로잔치 수준의 행사이다.

6. 과천 입지 효문화축제

과천 입지 효문화축제는 한국효문화센터(최사립효선양회), 과천문화원, 과천향교 주최로 개최된다. 과천 출신 효자 입지 최사립 선생 추모, 효와 풍류로 즐기는 한시, 한국화, 글짓기, 독후감 등이 진행된다.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랜드 지구별 무대, 과천문화원 야외공연장과 효자 최사립 정문 앞 일대에서 진행한다. 줄타기보존회, 한뫼국악예술단의 개막공연 행사, 사진콘테스트 시상, 효를 주제를 한 효애니메이션 웹툰, 사랑과 감사의 매듭체험, 효부채, 효가훈 및 인쇄 체험 행사, 효 음식(다식), 컷! 효자효녀 되어보기 행사 프로그램, 가족놀이마당체험(버나, 공기놀이, 딱지치기, 탈놀이) 프로그램, 사랑 in 카네이션, 효문화자료관 전시행사 등, 효 한시회, 휘호, 풍류한마당, 경로잔치 행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여기에서 최사립(崔斯立)은 1505년 과천막계(果川莫溪)에서 출생하여 살았던 효자로서 조선왕조실록에 그 지극한 효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정각은 소실되고 하사받은 액자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으므로 충효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과천시에서 정각을1995년에 복원하였다. 과천의 선바위길 옆에 있는 효자정각은 원래 막계동에 세워져 있었는데 소실되고 현재는 하사받은 액자만 남아 있었다.

최사립(1505~?)은 본관이 전주(全州), 자는 입지(立之)이며, 현 막계동에서 출생하였다. 묘는 막계동에 있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1979년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로 이장하였다. 그는 한성부윤 사위(士威)의 5세손이며, 돈녕부첨정(敦寧府僉正)을 지낸 결(潔)의 아들이다. 막계동의 전주 최씨는 사위의 아들 조(肇)가 당시 과천현 막계 농막동(農幕洞)으로 이주함에 따라 세거하게 되었다.

최사립은 가세가 곤궁하였으나 송진으로 불을 밝히며 경서를 탐독하였고 항시 독서로 소일하여 사림의 존경을 받았다. 일찍이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업하였다. 중종이 사정전(思政殿)에 행차하여 진강할 때 최사립이 10여 명과 함께 종이와 붓을 받았으며 몇 년 후 진강에 참여하여 윤홍의 등과 함께 3등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벼슬은 음직으로 배천군수를 거쳐 사헌부집의, 해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에 이르렀다.

그는 특히 『소학』을 행동강령의 근본으로 삼아 부모를 공양하였다. 모친

상을 당하여 애곡하고 심상함이 심하였고, 여막을 지어 삼년상을 치르며 매일 조석으로 성묘하여 호곡하였다. 부친이 병으로 위독할 때에는 각처의 의원에게서 비방을 구하여 시약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그러던 중 칡꽃을 먹으면 기력을 회복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온 마을을 돌아 칡꽃을 구하기도 하였다.

본 행사의 단점은 이 지역 출신 효자로 이름난 최사립 인물에 치중된 행사로 아직은 전국화 되지 않은 미약한 효문화축제로 평가된다.

7. 기타 소규모 축제

강남구 효 큰잔치
강북구 천태자비 효 축제
구로구 효 나눔축제
동작구 효 축제
중랑구 어르신 효 축제
성북구 효 한마당축제
노원구 실버카페 효 문화축제
관악구 노인 효 축제
대구 고모령 효 축제
대구 달서구 행복 효 나눔 축제
횡성군 정금 효 축제
청원 현도면 오박사 마을 효 축제 한마당
진천군 청소년 효 한마당 축제
인천 순복음교회 하모니 효 축제
부평 효 사랑 어울림축제
남양주 어버이날 효 축제
안양 효 실버축제한마당
안흥 효 축제
김포 효 국악축제
아산 효 한마당축제

논산 효 축제
정선 효 문화축제
원주 카톨릭복지관 효 사랑 어울림 한마당축제
음성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청양 효 문화축제
성주 효 실천 정나눔행사
충주 청소년 효축제
영동 효 축제
옥천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용인 사랑의 효 축제한마당
충북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파주 희망의 선물나눔 효 축제
청송 효 예절골든벨대회
보령 효 나눔경로잔치
강경 효 젓갈축제
금산 효 실천 한마당 축제
구미 효 잔치한마당
전주 장수기원 효 사랑축제, 모악산 효 한마당축제
보은 효 한마음축제
장성 효 드림축제
벌교 효 사랑축제
포항 이팝 효축제
부산 효의 달 대축제
괴산 증평 청소년과학 효 한마음축제
코엑스 행복한 효 축제

이밖에도 군소자치단체와 각급 학교나 각종 기관 및 종교단체의 효문화 관련 축제 다수 존재하고 있음

제2절 효행상 운영사례

1. 국가의 효행상

보건복지부에서는 효행자상, 장한 어버이상, 노인복지기여자상, 전통모범 가정상 등이 있으며, 시, 도, 군, 구별로 효자상, 효녀상, 효부상, 다문화효행상 등이 있다.

2. 각종 단체의 효행상

삼성복지재단 : 효행부문, 효행상, 경로부문, 화목부문, 특별부문
아산복지재단 : 경로, 효친, 효문화, 청소년효행부문
KBS : 대상, 본상, 특별상, 협찬사상, 장려상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대상, 본상, 특별상, 협찬사상, 장려상
사단법인 보화원 : 효자상, 효부상
한국부인회 : 효행상
한국청소년연맹 : 효행상
청소년효행대상 : 효행청소년상, 모범소년소녀가장
대한노인회 : 효행상
한국효도회 : 효행상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효행상
가천문화재단 : 심청효행상
뉴저지상록회 : 효행상
우산장학문화재단 : 효행상
서산중앙병원 : 효행상
포항향토청년회 : 효행상
교육청 : 효행상
영흥화력본부 : 효행상

종친회 : 효행상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 : 효행상
현죽재단 : 효행상
농협 : 효행상
진주청실회 : 효행상
은산해운항공 : 효행상
동서발전 : 효행상
한나프레스 : 효행상
상록회 : 효행상
사천문화원 : 효행상
한미충효회 : 효행상
목포백년회 : 효행상
화랑동지회 : 효행상
과학교육재단 : 효행상
서암재단 : 효행상
시카고한미상록회 : 효행상
새크라멘토한인회 : 효행상
각종 기업 : 효행상
사립중고등학교장회 : 효행상
각종 학교 : 효행상
기타 각종 재단 : 효행상

제 5 장

효 실천 및 교육방법

제1절 효행의 규칙과 실천

제2절 효행의 생활화

제3절 효행수준 측정

제4절 봉사활동

제5장 효 실천 및 교육방안

제1절 효행의 규칙과 실천

1. 효행을 하는 이유

지금까지 수 십 년간 효행상을 탄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1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① 부모를 존경하기 때문에
②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③ 부모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④ 부모를 동정하기 때문에
⑤ 부모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⑥ 가족을 화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⑦ 하지 못한 일을 부모에게 효도를 함으로써 보상받기 때문에
⑧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⑨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⑩ 지역사회의 화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⑪ 가족체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⑫ 가족의 영속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⑬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2. 효행의 실천

①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정성껏 모시는 일
②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③ 열심히 공부하고 소질을 키워 꿈을 가꾸는 것

④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함
⑤ 예절 바른 행동을 해야 함
⑥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생활하는 것

3. 효행실천의 원칙

① 몸을 소중히 간수한다.
② 마음을 바르게 가진다.
③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4. 효도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

① 부모님의 나이, 고향, 일가친척, 건강상태, 직업, 좋아하시는 일과 음식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②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문안 인사를 드리도록 노력한다.
③ 외출을 할 때는 행선지와 귀가 예정 시간을 말씀드리고, 돌아와서는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린다.
④ 외출한 후 예정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다.
⑤ 부모님께서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문밖까지 나가서 배웅하고 맞이한다.
⑥ 식사할 때는 부모님보다 먼저 시작하지 않으며, 부모님께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다.
⑦ 중요한 일은 항상 부모님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늘 함께 대화하는 습관을 기른다.
⑧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얼굴을 온화하게 하며, 결코 형제간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⑨ 늘 부모님 곁에 있도록 노력하며, 떠나 있게 될 경우에도 자주 소식을 전하고 찾아뵙도록 한다.

⑩ 작더라도 부모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도록 하며, 부모님의 일을 거들어 드린다.
⑪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부드럽고 간곡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린다.
⑫ 부모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큰 소리로 대답하고 달려가 뵙도록 한다.
⑬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면 정성껏 간호하고, 병환이 깊어지기 전에 병원으로 모셔서 진찰을 받고 치유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효행의 생활화

1. 효행생활에 대한 개요

효의 실천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효에 대한 교육 또한 일상적인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전통사회 속의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효교육은 지금으로서 보면 그 내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효행설화 속의 효행자들이 처한 가정은 대부분 매우 가난하며, 편모 또는 편부를 모시고 있는 불우한 가정환경에 처하여,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비범한 선택적 행동으로 효를 결행하고 있다. 효행설화의 내용에는 평범한 가정을 소재로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것은 결국 효행설화의 내용이 일반인의 효교육을 위한 일상적 자료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효경』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를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삼강행실도』를 비롯한 각종 전통효행교재에는 부모님의 병구환이나 굶주림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팔, 넓적다리 등의 살을 베어 부모를 봉양하는 등 신체를 훼상하는 행위들을 지극한 효행의 실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인권은 평등한데 교조적 유교의 당위론에 빠져 부병단지(父病斷指), 모병살비(母病殺脾)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은 도리어 비례가 된다.”고 하면서 당시 사회윤리관 또는 가치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효행설화에는 심지어 자식을 끓는 물에 삶아 봉양하는 등 자학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적 효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칭송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이고 양자택일적인 상황 하에서 비장한 각오로 결행되었던 그러한 행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효라 지칭할 수도 없는 행위도 많이 있다.

효의 목적이 부모님을 편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볼 때, 상식적으로 그러한 행위 앞에 마음 편해하고 기뻐할 부모란 없을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 양자택일적 선택을 해야만 될 경우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경우가 더 많다.

효는 비범하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물 흐르듯이 실천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보다 실천 가능한 개념과 행동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 행위로 이끌지 못하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효정신은 전달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잘못 이해되어 자연스러운 효도를 인위적인 효도로 비약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비정한 고행(苦行)이나 억지 효를 강요하는 폐단, 자연적이고 상호적인 인간관계의 퇴색, 실천과정에서의 왜곡과 오해 등 현실윤리를 무시한 효교육은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다. 효개념의 본질은 사랑과 공경의 정신을 평범한 현실사회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유교의 오륜사상은 인간존중이나 평등윤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한(秦漢)시대에 등장한 삼강사상은 오륜사상과는 달리 상하관계의 윤리체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자연히 효개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삼강사상은 전제군주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종적 인간관계는 부모-자식이 사랑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부모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내지는 자식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해되기 쉽다. 이러한 권위적 가족관계는 지역사회·직장·학교 등 사회적 관계로 이어져 나이, 학번, 군번, 입사연도 등에 따라 상하 서열을 중시하여 개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왜곡된 사회관계 형태와 무관할 수 없다. 가정에서부터 서로의 사회적 위상을 존중하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바른 효교육은 가정의 소중함과 인간 존중의 태도를 익히고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효교육을 위한 가정 분위기와 배경과 교육의 목표를 공감해야 한다.

첫째,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가정 분위기의 변화이다. 현대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다. 최근 사회생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생활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부자(父慈)와 자효(子孝)가 상응하도록 새로운 형태의 노력이 요구된다. 효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의존 관계이며, 부모다움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육과 교육이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원만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범이 되고 사랑과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대적 효는 가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정립되어야 한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제도에서 애정으로 결합된 부부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에서 가사에 대해 의논하고 부부 상호간 분담된 일까지도 서로 도와주려고 한다. 또한 자녀의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식사 중 무성의하게 대화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부모들은 10년 뒤 자녀들의 비행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 효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 함양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중함과 감사와 존경, 그리고 친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효하는 마음을 확장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도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게 하여, 형제와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되며 더 넓게는 국가와 세계, 심지어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환경과 자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얻어맞고 들어온 아이에게 '너도 때려라 바보같이 맞지만 말고' 라고 분통터트리는 부모는 자식의 인격적 성숙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효 교육을 통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는 의지이다. 부모의 뜻을 이어받고, 가문을 빛내고,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부모와 가문을 빛내려는 마음은 사회적 입신을 위해 노력하

게 하고, 때로는 고고한 절개와 강인한 지조, 불의에 대한 저항과 사욕에 대한 경계의 힘을 북돋아 주었던 바탕이기도 했다. 효 정신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효의 본질과 실상을 이해한다면 효를 우리가 추구하여 나아가는 미래사회에 훌륭한 하나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효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서에 터한 것으로, 단지 부모와 자식 간에만 적용될 도덕규범이라고 제한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정서와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효정신은 한편으로는 본의와는 다르게 부정적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조상숭배 정신에 따른 지나친 장례문화, 남아선호경향, 종적 사회윤리관, 효행설화의 극단적 효행, 한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희생 등 현대사회에 부적합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효의 교육방안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효를 단지 중세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라고 평가하고 비판 배척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개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국가의 운영원리로 도입하여 효를 사회화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구조상, 효사상을 경제원리나 정치원리로 보편화하기는 어렵지만, 부모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제, 주택 등에 있어서 효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이며 앞으로는 효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개개인에게 부모 봉양을 내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온 국민이 노인의 생활과 건강, 여가활동에 대해 공동부담하는 현실정책이 절실하다.

과거 전통사회는 물론이며 최근에도 효행에 관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중풍, 치매, 장애인 등 시부모의 병 수발을 10여 년간 희생적으로 수행한 이들을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활성화 등 개인중심의 희생적인 병수발이 아닌 사회국가적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여 사회봉사체계와 국가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조상숭배정신은 효심을 일깨우고 동족과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일깨우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그 폐단으로 지나친 장례문화와 매장문화, 제례문화를 행하고 있다.

좀 더 넓고 위치가 좋은 장소를 골라 사후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 대한 효이지만, 이로 인해 매년 국토의 많은 부분이 묘지로 변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제사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의 연장이며, 제사문화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제주(祭主)는 반드시 남자에게만 세습되어 남아선호 관념이 강화되었다. 본래 제사는 16세기 말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윤회봉사(輪回奉祀), 외손봉사(外孫奉祀)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어 남녀 차별이 없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제사문화는 적장자 상속제로 정착되어 남아선호 관념이 확산되었고, 오늘날에도 이어져 최근 남녀 간 아동 성비의 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녀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의거하여, 제사문제, 부모봉양문제에 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효행의 교육방안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상호보완하는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래에 교육에 있어서 효실천을 통한 인격과 도덕의식의 함양이 더욱 요구되어 지는데, 효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체험으로서 가르치는 실천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가정교육이 부각되고 부모의 역할이 더욱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학교의 효 교육내용을 피교육자가 가정에서 그날그날 실천하도록 교사와 부모의 정기적인 상호연계가 필요하다. 효를 몸으로 체험해 가는 가운데 현대사회에 필요한 다른 도덕성도 함양될 수 있다는 교육현장에서의 보고는 요즘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다. 자기 주변을 청결히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출발점이라고 한 『소학』을 중시하였던 과거의 선비들은 효를 관념이나 이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론이나 관념 이전에 실천을 중시하는 교육관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차원의 교육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교육효과이므로, 교사-학생-부모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효에 관한 교

육과정과 교육평가에 있어서 학교-가정의 협조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효는 부모에 대한 공손과 봉양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기관리를 통하여 자기세계를 발전시키고, 사회존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도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 방침을 제시해 본다.

2. 효정신을 실천하는 기본자세

<표 3> 효정신을 실천하는 기본자세

1	**자기 몸을 소중히 간수하고 있는가?**
2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3	**자기의 맡은 학업이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첫째, 부모에 대한 관심 :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이해는 효의 출발이다.

둘째, 성실한 자기관리 :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좋은 효도이다.

셋째, 형제간의 우애와 가족 간의 화목 : 형제간에 우애하여 화목하고 협조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중요한 효도이다.

넷째, 부모의 소박한 기대에 부응하기 :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는 과거와 같은 지효(至孝)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소망은 한결같이 소박하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부모의 기대는 의외로 가까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다섯째, 따뜻한 대화와 상호이해 : 부모 자식간의 세대 차에서 오는 거리감이나 이견은 의당 있는 일이므로, 부모자식간의 대화를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모에 대한 인사의 생활화 : 부모의 사랑은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인사의 생활화는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계기가 되어 효도

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일곱째, 상례와 제례 등 집안일에 적극적인 참여 : 상례와 제례는 자식 된 자로서 가장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 상중에 그 슬픔을 다하고 또 제사 때 그 정성을 다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상례를 치루는 기간 동안 모든 가족 구성원은 자기 역할이 있도록 적절하게 안배해야 하며, 제례에도 축문을 해마다 돌려가며 국문으로 작성하고 읽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도록 한다.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라고 해도 기일을 기억하고 추모식을 거행하며, 자손들이 돌아가며 기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효 실천 세부항목

효실천 세부항목을 아래 <표 4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효실천 세부항목

구 분	세부항목	
1. 부모에 대한 관심	1	.부모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도록 한다.
	2	부모의 거처가 편한지 항상 살핀다.
	3	부모의 연세, 고향, 일가친척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도록 한다.
	4	부모의 건강상태,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도록 한다.
2. 성실한 자기 관리	1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기본생활습관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3	가정의 미풍양속과 전통을 계승하려고 노력한다.
	4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노력한다.
	5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3. 형제 및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	1	형제간에 바른 예절을 지킨다.
	2	부부간에 화목하며 동기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형제간에 약속을 지키며 각자의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처리한다.
	4	형제간에 서로 이해하며 아끼고, 용기를 북돋으며 우애를 돈독히 한다.
	5	가족회의를 자주 하여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며 종종 오락회도 갖는다.
	6	형제간에 물질적으로 돕되, 의지하려는 생각은 버린다.
4. 부모의 소박한 기대에 부응하기	1	어버이날이나 생신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2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낸다.
	3	부모님이 병환이 났을 때 즉시 최선을 다해 보살핀다.
	4	가능한 모든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5	부모가 하고자 원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린다.

<표 4>에서 계속

구분	세부항목	
5. 부모와의 대화	1	중요한 일은 항상 부모님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늘 함께 대화하는 생활 습관을 기른다.
	2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부드럽고 간곡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린다.
	3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얼굴빛은 온화하게 하며, 결코 형제간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면 혼자 계시지 않도록 늘 옆에서 모시고 정성껏 간호한다.
6. 부모에 대한 인사의 생활화	1	매일 '안녕히 주무세요.'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등 인사하도록 한다.
	2	부모가 부르면 즉시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달려가 뵙도록 한다.
	3	부모가 출입할 때 반드시 일어나서 문밖에 나가 배웅하고 맞이한다.
	4	식사할 때, 부모보다 먼저 시작하지 않으며, 부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수저를 그릇에 넣은 채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한다.
	5	외출할 때, 반드시 행선지와 귀가 예정시간을 말씀드리고, 돌아와서는 인사를 드리도록 한다.
	6	외출 시 예정보다 귀가가 늦어질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늦는 이유와 귀가시간을 알리도록 한다.
	7	되도록 부모 곁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하며, 학업이나 직업 때문에 떠나 있게 될 경우에도 전화나 편지로 자주 소식을 전하고 찾아뵙도록 한다.
	8	작더라도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도록 노력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도록 한다.
7. 집안일 참여	1	상례와 제례 등 집안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집안청소나 가재도구를 정리 정돈할 때 열심히 돕는다.

4. 부모님에 대한 예의

①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부르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큰소리로 대답한 뒤, 즉시 부모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② 물건을 드릴 때에는 웃어른이 물건을 잡기에 편하도록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립니다.
③ 부모님이 계신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하거나 인기척을 낸 뒤 안에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시면 조용히 들어갑니다.

④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 밝은 표정을 짓도록 노력합니다.
⑤ 부모님께서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대문 밖에까지 따라 나가 인사를 합니다.
⑥ 부모님께서 외출하였다가 돌아오셨을 때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가 인사를 하고, 부모님께서 손에 물건을 들고 계실 때에는 얼른 받아 들도록 합니다.
⑦ 부모님께서 과일이나 과자 등을 사가지고 오셨을 때는 꼭 부모님께 먼저 권한 뒤에 먹습니다.
⑧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하실 때는 자주 살피고 도와드릴 일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⑨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잘 따릅니다.
⑩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언제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노력합니다.
⑪ 부모님께서 조금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 하도록 노력합니다.
⑫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형제자매끼리 우애 있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5. 호칭

현대인이 부르기 쉬운 우리말 호칭을 주로 하고 한문 호칭은 대표적인 것만을 예시한다.

1) 자기에 대한 호칭

저·제 : 웃어른이나 여러 사람에게 말할 때.
나 :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저희 : 자기 쪽을 남에게 말할 때

2) 아버지에 대한 호칭

아버지 : 자기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아버님 : 남편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애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아빠 : 말을 배우는 어린이(초등학교 취학 전)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르신네 :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가친(家親) :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말할 때

춘부장(春府丈) :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현고(顯考)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쓸 때
선고·선친(先考·先親) :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대인·선고장(先大人·先考丈) : 남에게 그의 죽은 아버지를 말할 때

3) 어머니에 대한 호칭

어머니 : 자기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어머님 : 남편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에미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엄마 : 말을 배우는 어린이(초등학교 취학 전)가 어머니를 말할 때
자친(慈親) : 남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말할 때
자당(慈堂) : 남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현비(顯妣)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쓸 때
선비(先妣) : 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선대부인(先大夫人)·선모당(先慕堂)남에게그의죽은어머니를말할때
할아버지에 대한 호칭 :
할아버지 : 자기의 할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할아버님 : 남편의 할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말할 때
할애비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를 말할 때
조부(祖父) : 남에게 자기의 할아버지를 말할 때
조부장(祖父丈) :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말할 때
현조고(顯祖考)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할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조고(祖考)·선조고(先祖考) : 자기의 죽은 할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왕고장(王考丈) : 남에게 그의 죽은 할아버지를 말할 때

4) 할머니에 대한 호칭

할머니 : 자기의 할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할머님 : 남편의 할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할머니를 말할 때, 또는 자기의 할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할미 :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기를 말할 때

조모(祖母) : 남에게 자기의 할머니를 말할 때
조모(祖母)님 : 남에게 그 할머니를 말할 때
현조비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할머니를 쓸 때
선조비 :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선왕대부인(先王大夫人) : 남에게 그의 죽은 할머니를 말할 때

4) 아버지의 형제에 대한 호칭

큰아버지·둘째 아버지·작은아버지 : 아버지의 큰형·둘째 형제·막내 동생을 부를 때
아저씨 : 아버지의 미혼인 동생
백부·중부·숙부·계부(伯·仲·叔·季父) : 남에게 자기의 백숙부를 말할 때(叔은 셋째 이하이고, 季는 막내임)
백부장(丈)·중부장·숙부장·계부장·완장(阮丈) : 남에게 그의 백숙부를 말할 때(완장은 통틀어서 쓰임)
선백부·선백부장(先伯父·先伯父丈) : 자기나 남의 죽은 백숙부는 살아 있는 백숙부의 호칭에 선을 붙여서 말함.
큰어머니·둘째 어머니·셋째 어머니·작은어머니 : 백숙모를 직접 부를 때(작은어머니는 막내에게만 쓴다.)
백모·중모·숙모 : 남에게 자기의 백숙모를 말할 때
존백모·존숙모(尊伯母·尊叔母) : 남에게 그의 백숙모를 말할 때
선백모·선백모부인(先伯母·先伯母夫人) : 자기의 죽은 백숙모는 생전시의 칭호에 선자를 붙여서 남에게 말하고, 남의 죽은 백숙모는 생존시의 호칭 앞에 선을, 뒤에 부인을 붙여서 말한다.
큰아버님·둘째 아버님·숙부주(叔父主)·백모주(伯母主) : 편지에 쓸 때는 우리말 호칭에는 님, 한문식에는 주를 붙여서 쓴다.

5) 아버지 형제분이 많은 경우의 호칭법

아버지 형제분이 많은 경우 맏 아버지, 둘째 아버지, 세째 아버지, .., 끝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원칙. 현재 일반적으로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형이 되면 큰아버지, 아우가 되면 작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좋다.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우리나라 표준화법에서도 인정

하고 있다. 또한 형제가 많을 경우 택호를 사용하여 부르는 것도 좋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택호로 서울 큰아버지, 진주 큰아버지, 부산 작은아버지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 택호는 처가 고향명(마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택호는 집안 어른이 지어 준다.

6) 8촌 이내의 근친에 대한 호칭

고모·고모님·아주머니 : 아버지의 누이를 직접 부를 때
외숙· 외숙모 :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이모· 이모부 :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아저씨 : 아버지의 4촌 이상 형제들을 부를 때(당숙·재종숙)
아주머니 : 아저씨의 배우자나 아버지의 4촌 이상의 자매들을 부를 때(당숙모·재종숙모·당고모)
언니·형님·누나·누님·-실·-집 : 4촌 이상의 형제자매간의 호칭(伯·仲·舍·季를 쓰지 않는다.)
큰할아버지·-째 할아버지·큰할머니·-째 할머니 : 아버지의 백숙부모를 부를 때

7) 8촌이 넘는 일가의 호칭

대부(大父)·대모(大母) : 할아버지와 할머니뻘 되는 어른을 부를 때
아저씨 : 아버지의 형제가 되는 남자 어른을 부를 때
아주머니 : 아버지의 자매나 아저씨의 배우자를 부를 때
언니·형님·누나·누님 : 자기와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을 부를 때

제3절 효행수준 측정

1. 초등수준 - 나의 효도 수준 점검

학교명 : 학년 반 번 성명 :
(질문 끝에 해당되면 O, 해당되지 않으면 X 표시를 한다.)

1. 부모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고마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부모님이 피곤해 보이시면 어깨나 다리를 주물러 드린다.
3.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4. 침구정리나 자기 방 정리정돈 등 자신이 할 일은 스스로 한다.
5. 부모님이 하시는 일 중 쉬운 일은 도와드린다.
6. 형제자매끼리 다투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낸다.
7. 사유를 말씀 드리고 외출을 하며 돌아와서도 인사를 드린다.
8. 약속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지 않도록 한다.
9. 교통질서를 잘 지켜 다치지 않도록 한다.
10. 오락실이나 PC방에 자주 가지 않는다.
11. TV는 내용을 가려서 보며 지나치게 오래 시청하지 않는다.
12. 용돈을 절약하여 저축을 한다.
13. 부모님께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14. 부모님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실 때에는 눈을 바라보며 새겨듣는다.
15. 부모님께서 외출하실 때나 돌아오셨을 때에는 인사를 드린다.
16. 학교에 등교할 때나 집에 돌아왔을 때도 인사를 드린다.
17. 부모님께서 묻는 말씀에 짜증내지 말고 차근차근 똑똑하게 대답한다.
18. 부모님이 부르시면 큰소리로 대답하고 빨리 달려간다.
19. 나의 중요한 일은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2. 중등 수준 - 나의 효도 수준 점검

학교명 :　　학년　반　번　성명 :

(질문 끝에 해당되면 O, 해당되지 않으면 X 표시를 한다.)

1. 작은 일에도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 부모님께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위로해 드리며 함께 걱정한다.
3. 부모님이 피로해 보이시면 어깨나 다리를 주물러 드린다.
4.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5. 침구정리나 책상 및 자기 방 정리정돈은 자신이 스스로 한다.
6. 부모님이 하시는 일 중 쉬운 일은 도와 드린다.
7. 형제자매끼리 다투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낸다.
8. 공부하는 시간과 놀이 시간을 구별하여 행동한다.
9. 약속시간 보다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10. 교통질서를 잘 지켜 다치지 않도록 한다.
11. 오락실이나 PC방에 자주 가지 않는다.
12. TV나 VTR은 내용을 가려서 보며 오래 시청하지 않는다.
13. 용돈을 절약하여 저축을 한다.
14. 부모님께 늘 존댓말을 쓴다.
15. 부모님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실 때에는 눈을 바라보며 경청한다.
16. 부모님께서 외출하실 때나 돌아오셨을 때에는 인사를 드린다.
17. 학교에 등교할 때나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인사를 드린다.
18. 외출 시 사유를 말씀 드리며 돌아와서도 인사를 드린다.
19. 중요한 일은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20.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씀드린다.

제4절 봉사활동

1. 효행 봉사활동

봉사활동이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자원활동, 자원복지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복지를 향한 가치 이념임과 동시에 민주 방법에 의한 자주, 협동의 실천노력이며, 개인·집단·지역 사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公私)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선 활동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생각도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활동과 자아의 실현과 발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갖추기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봉사자의 자기실현 및 사회의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 및 생활방식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오랜 역사를 지녀왔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자원봉사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채용에 자원봉사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승진시 자원봉사자 인사 우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봉사 단체 협의회'를 결성하여 자원 봉사의 생활화에 힘쓰고 있다.

학생봉사활동은 봉사학습으로서, 체험학습을 통해 개인의 만족감을 증진시켜주며, 사회 참여의 기회와 사회 속에서의 책임을 실천할 기회를 준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며 자기존재의 의미, 자기 존중의 정신을 스스로 깨달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지역

사회에서 실천함으로써 그 지식과 기술을 더욱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봉사활동분야에서 스스로 활동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는 일은 여가를 뜻있게 활용하는 일이 되며 자신의 취미향상을 도모하는 일이 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기도 하며, 학습경험은 더욱 풍부하게 된다.

결국 학생들은 봉사활동이라는 가치 있는 삶의 체험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게 되고, 이상적인 공동체 삶에 대한 기초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는 자발정신과 협동정신, 책임감을 배움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는 그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다.

2. 효 위문활동의 유형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희생정신을 함양시키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인식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인격 형성을 도모하게 한다. 진정한 봉사정신을 학습하도록 하여 효행심을 고취시킨다. 효 위문활동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독거노인 및 요양원 정기 방문 활동
- 사제동행 봉사활동
- 청소 및 세탁해드리기
- 손톱, 발톱 깎아드리기
- 마사지 및 안마해드리기
- 세수, 머리샴푸, 목욕해드리기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주변 환경 청소하기
- 텃밭 손질 및 매어드리기
- 고추 따기 및 배추 심기
- 편지 대필해드리기
- 외로운 노인의 손자·손녀 되어주기
- 간단한 심부름하기

- 말벗되어 드리기
- 신문 및 편지 읽어 드리기
- 산책 동행해드리기
- 소중한 선물 만들어 드리기
- 김밥 및 간식 만들어 드리기
- 노래, 춤, 연주 등으로 위로해 드리기
- 학교에 초청하여 공부하는 광경 및 공연 보여드리기
-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다도 및 다과회 개최하여 위로하기
-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마당 만들어드리기
- 체육대회 행사 등에 초청하여 구경시켜 드리기

3. 소감문 작성

봉사활동 이후 반드시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효행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소감문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효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 중 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은 없다.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지 않는 학생이 학교에서 스승이 가르치는 지식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무의탁 노인의 손자, 손녀 되기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가족과 부모님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끼고, 나아가 웃어른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미풍양속을 유지·발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6 장

효문화콘텐츠 개발

제1절 효문화사업 개발
제2절 인센티브 부여사업

제6장 효문화콘텐츠 개발

제1절 효문화사업 개발

1. 효문화사업 발굴

1) 효사상문화연구회 발족

효사상문화 발전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효문화진흥원 산하 단체로 효사상문화연구회를 만든다. 지역인사들 중 전문성을 가진 교수와 학자, 교사 및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여 발족시킨다. 구성 –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서기, 회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등

2) 효문화연구소 개원

효문화 보급을 위해 약간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과 지역 향토사학자들로 구성된 효문화진흥원 산하 효문화연구소를 만들어 개소한다. 부차적으로 효에 관한 각종 논문들과 글들을 수집하여 정리·보관한다. 효뿌리문화축제의 기원이 될 만한 것들을 발굴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또 세계적인 효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효문화연구소에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3) 향토사랑 문화유산해설가 모임

향토사학자들과 가급적 퇴임 역사학교수 및 퇴임 국사교사들과 효문화나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는 각계 퇴임원로들을 주축으로 향토사랑 문화유산 해설가 모임을 구성한다.

4) 효문화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을 개원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학습(컴퓨터교실), 구직상담과 성문제상담 및 이성교제를 비롯한 일반상담(노인전문상담실),

운전강습(이론중심), 건강교육프로그램(체육실) 등을 운영하며 소규모로 장기와 바둑(오락실),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체육실과 샤워실) 등을 교습한다.

5) 효행기념관 개관

효문화지원센터나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인근에 효행기념관을 설치한다. 전통시대와 현대시대의 효자, 효녀, 효부, 경로효친 효행자들의 효도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효도내용을 수록하고 포스터 등을 만들어 전시한다.

6) 효문화 홈페이지 개설

기존의 홈페이지 확대나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국제화를 위해 영어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부설 효행사이버체험관도 운영한다.

7) 효강연회 및 특강 개최

효 관련 전문학자들이나 향토 효문화학자들을 활용하여 특강 및 강연회를 연다. 매년 또는 격년제로 국제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8) 효문화 시민강좌 개설

효 관련 전문학자들이나 향토 효문화학자들을 활용하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운영한다.

9) 효문화 엑스포 및 박람회

효와 관련된 효문화 엑스포 행사와 효박람회를 개최한다.

10) 효문화 음악페스티발 개최

효와 관련된 문화행사와 국악·음악제를 개최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참여하는 '나도 가수다' 코너를 운영한다.

11) 효사상문화 학술발표회 및 효사랑 삼각끈 캠페인 개최

전국의 전문가들이나 향토 효문화 학자들을 활용하여 효사상문화 학술발표회를 연 1~2회 실시한다.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 및 후원자들의 3세대

신가족 만들기 등 효사랑 삼각끈 캠페인을 벌인다.

12) 성년식 및 양로회 재현

향교 전교 및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모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년식을 재현한다. 향교 관계자들을 초빙하고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통 양로례(양로연)을 해마다 재현하고 지팡이 및 부채 등을 선물한다.

13) 효문화 연극제 및 효문화 백일장

효와 관련된 프로 또는 아마추어 연극공연(심청전, 구운몽 등)을 개최한다. 효문화와 관련된 시, 수필, 편지, 문자보내기, 시조 짓기 대회 등 백일장을 연다.

14) 효문화동영상(UCC) 공모전

효행과 관련된 디지털 동영상(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15) 효돌이·효순이 로고 제작 및 대중화

효문화의 상징적인 로고로 효돌이· 효순이 로그를 공모하여 제작하고 이를 널리 홍보한다.

16) 효문화선도사업과 마스터플랜의 작성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만들어 계속적인 효문화사업을 벌이고 10개년 단위로 효문화진흥마스트플랜을 작성한다.

17) 효문화유적지 답사 및 다문화가정 효문화프로그램 개발

아동 및 청소년들(일반인도 가능)을 대상으로 주말, 공휴일을 활용하여 효와 관련된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효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다.

18) 칠순·희수(77)·산수(80)·미수(88)·백수(99)잔치 개최

시민들에게 효문화마을 등의 장소(강당)를 제공하고 전통방식으로 칠순, 희수, 산수, 미수, 백수잔치 등을 진행한다.

19) 도혼식(20), 은혼식(25), 진주혼식(30), 산호혼식(35), 홍옥혼식(45), 금혼식(50), 금강혼식(60, 75) 개최

결혼기념일이 오래된 경우 특별기념행사를 치르도록 강당을 빌려주고 순서를 도와준다.

20) 경로효친잔치 및 경로예술제

뿌리공원에서 해마다 1회 정도 80세 이상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을에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참여하는 예술제를 병행한다.

21) 사이버 효학교 운영 및 효 문화 애니메이션 제작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효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며, 효문화 만화, 영상매체를 제작하여 출판, 방송한다.

22) 효 문화 교사연수 교육

방학기간 동안 교사들이 효문화 연수교육(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3) 효 문화교육 교재 발간 및 효행소식지 발간

각급 학교에서 효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부교재를 개발하며, 효행소식에 관한 소식지를 월간이나 계간으로 발행한다.

24) 자치단체의 효행상 제정

효행상을 제정하여 효문화 축제 때 시상한다. 표창, 상패, 상품 등

25) 효 문화 미술제 및 문학제 개최

효문화 그림그리기 대회와 효문화 시화전, 서화전, 효 창작동화, 효 단편소설 대회를 개최한다.

26) 효 문화 전시회 개최 및 효행공모 수필집 발간

효문화에 관련된 각종 유물이나 제작된 것들을 전시한다. 또한 효행이야기, 수기들을 공모하여 효문화 수필집을 발간한다. 효문화지원센터의 효행록을 확대하거나 월간 '샘터' 내지는 '좋은 생각' 수준의 책으로 만들어 대중화한다.

27) 족보암송대회 개최

조상, 시조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암송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는 시상한다.

28) 가족 서예대회 및 장기자랑 개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효 관련 서예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가족팀을 시상한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가족을 시상한다.

28) 가족 사진 콘테스트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담은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우수작은 시상한다.

29) 제례 재현 행사 및 가훈 전시회

청소년 학생(일반인)들을 초청하여 각종 제례 행사를 재현한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훈전시 및 가훈짓기 대회를 연다.

30) 효 관련 속담 및 격언 전시회

효와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 또는 표어 등을 전시한다.

31) 효 관련 삼행시 짓기 대회

해마다 다양하게 내걸고 삼행시 또는 사행시 짓기 대회를 연다. 사행시의

경우는 경로효친, 부자유친, 부자자효, 엄부자모, 혼정신성 등등과 삼행시의 경우는 반포조, 효문화, 어르신 등등.

32) 효녀심청 마당극

마당극단을 초청하여 효녀심청 마당극을 공연한다.

33) 대가족 집안 찾기

3대 또는 4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대가족을 찾아 사례를 홍보한다.

34) 대물림 가게 찾기

3대, 4대, 5대째 한 가게를 대물림 운영하는 경우를 찾아 널리 홍보한다.

35) 가족 효 문화 퀴즈 대회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효 문화 관련 퀴즈대회를 연다.

36) 어버이날 시가행진

5월 8일 대대적인 효문화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펼친다. 부모를 업은 모습, 부모를 안은 모습, 부모를 휠체어나 카트에 태운 모습, 각종 표어, 현수막, 개인 아이디어와 가족 아이디어 총망라하여 행사를 치른다. 브라질 리우축제퍼레이드처럼 개최할 수 있다.

37) 가족 사랑 걷기 및 달리기 대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걷기 및 건강달리기 대회를 연다.

38) 경로효친 부모 업고 걷기 및 거북이 마라톤 대회

자녀들이 부모를 업고 걷는 행사와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연다.

38) 부모사랑 자녀사랑 세족식 행사

자녀가 부모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행사를 연다. 부모가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도 아울러 병행한다.

39) 실버미인대회 및 실버몸짱대회

건강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실버미인대회 및 몸짱 선발대회를 연다.

40) 문중 명랑운동회 개최

문중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중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가족사랑 줄넘기, 가족사랑 기차놀이, 가족사랑 수건돌리기, 가족사랑 공굴리기, 풍선날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41) 문중 어르신 가마태우기 행사

문중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마만들기 및 가마태우기 행사를 연다.

42) 우수 효도 마을 지정사업

범죄 없는 마을과 마찬가지로 효자, 효녀, 효부가 많은 마을을 선정하여 효마을비를 세우고 널리 홍보한다.

43) 효 설화수집 편찬

효에 관한 설화를 마을마다 다니며 채집한 후 구비전승 문학전집으로 편찬한다.

44) 효 동화제작 및 구연행사 개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만드는 효 동화 창작과 구연동화 행사를 갖는다.

45) 효 서적발간 및 보급사업

효행관련 고전 및 현대서적을 발간하고 보급에 힘쓴다.

46) 효행 그림카드 만들기 대회 및 효행스티커 제작

효행 관련 그림 카드를 만드는 행사를 개최한다. 효행에 관련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크리스마씰처럼 활용한다.

47) 효행문화 책갈피, 책받침, 명함제작

효행에 관련된 책갈피나 책받침, 명함 등을 제작한다.

48) 효사랑 캠페인 구호 만들기

효문화, 효사랑 나눔에 대한 표어, 구호를 공모하고 캠페인을 벌인다.

49) 효문화 관련 창작동요 및 대중가요 만들기

효문화와 관련되는 창작동요나 대중가요 등을 제작하고 방송을 통해 보급시킨다.

50) 카네이션(별칭 부모사랑꽃) 제작하기

어버이날을 앞두고 효문화뿌리축제 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모여 카네이션을 제작한다.

51) 각종 전통 인사법 특강 교습

효문화지원센터에서 각종 전통예절인사법에 대한 특강 교습을 실시한다.

52) 어린이·청소년 한자 충효교실

효문화진흥원 또는 효문화지원센터 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교경전인 『효경』을 배우는 과정과 한자학습 및 충효교실을 연다.

53) 부모일기와 앨범선물 증정식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정을 쓴 육아일기나 사진자료, 아동기 후의 학교입학과 학교생활 및 졸업 등에 대하여 소감을 기록한 일기를 1년 단위로 보관하였다가 자녀의 생일날에 케익과 함께 선물하여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효심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3) 효뿌리문화대축제 활성화방안 논문공모

매년 실시되는 효뿌리문화대축제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전지역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현상논문

공모전을 열어 우수작은 시상한다.

2. 새로운 효문화 개선 사업

1) 효문화특구사업

대전광역시 중구만이라도 전국 유일의 효문화특구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 시범 공휴일 제정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한다.(어버이날이 국가공휴일이 되지 않는다면 대전광역시, 대전 중구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공휴일로 실시해 본다.)

3) 효문화 테마타운(파크) 및 효문화수련원 조성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은 뿌리공원 인근 유휴지를 가급적 활용하여 효문화 테마타운과 효문화지도사를 배치한 효문화체험수련원(유스호스텔)을 조성한다.

3) 효문화 게스트하우스 및 인터내셔널 효문화기념관 조성

효문화관광, 효문화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전 세계의 효문화도 알 수 있도록 국제효문화기념관을 조성한다.

5) 효마을 만들기 운동 전개

제2의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효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6) 효가족사랑 관련 드라마 촬영무대 제공

효테마파크 일대를 효문화와 관련된 드라마를 촬영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유치한다.

7) 효문화테마파크 내 지압길 설치

맨발로 다니며 발바닥을 지압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몇 군데에 야외 허

리돌리기 운동기구와 윗몸일으키기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8) 명칭변경하기

노인정 또는 경로당이라는 용어 대신'경로효친회관'이라고 명칭을 변경한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경로효친회관(노인정),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재활원들을 가급적 한 빌딩, 한 단지 안에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한편 어린이와 노인은 특성이 아주 유사하므로 한 장소와 건물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경로사상을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경로효친회관을 한 건물 안에 설계하는 방향으로 만든다.

9) 자매결연 맺기

1학교 대 1경로효친회관의 자매결연 맺기를 실시한다. 선도학교 및 선도학년과 선도학급을 지정한다.

10) 효행일지 작성

학생 1인과 어르신 1인을 연결하여 효행을 실천하게 하며 '효행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교육청 및 학교와 협조하여 그 결과를 각급 단계의 학교 도덕·윤리교과 수행평가에 반영케 한다.

11) 효문화타임즈와 인터넷TV방송

효문화교육신문과 효문화인터넷TV 방송을 제작, 운영한다.

12) 효문화 후원금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활용하여 효문화진흥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후원금과 기타 각계각층으로부터 기부금과 성금을 모금한다. 성금 제공자는 지역신문과 방송에 공개한다.

13) 효도통장만들기

경로효친사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모님을 위한 효도통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14) 효문화자원봉사단

대전시민을 중심으로 효문화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15) 건강식품·용품 매점 설치 운영

효문화테마파크 내에 건강식품 및 건경용용품 매점을 설치하여 친환경 건강식품, 효도김치, 효도깍두기, 각종 반찬공급, 건강용품 등을 배달, 구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16) 효도패키지 상품 개발

여러 가지를 혼합한 경로효친 상품, 사우나, 온천관광지, 건강농원, 전통시장 등을 연계한 효도패키지 상품을 개발한다.

17) 효도금융상품

금융권에서 각종 상조회 상품과 경로복지, 효보험, 건강보험, 관광보험 상담

18) 효도관광

국내 및 국외 여행하고 싶은 장소와 시기에 대한 상담 및 주선하기

19) 무료 의료 및 법률 등 상담

의료상담 및 진료서비스, 한방, 치과, 내과, 피부과 등 의료서비스 상담, 법률적인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경제적인 또는 재산상의 문제 상담,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상담하여 안내한다.

20) 기타 개명 고려 사항

공설운동장 → 효도큰마당 / 노천음악당 → 효도음악당 / 사회복지회관 → 효문화회관 / 청소년수련장 → 효행문화수련장 등

제2절 인센티브 부여 사업

1. 주요 권장사업

1) 효 글자가 들어가는 아이 이름짓기 권장

예를 들면 김효자, 김효동, 김효철, 이효녀, 김성효, 이효리, 전효성, 최효종, 효린, 효영, 효연, 효민, 공효진, 한효주 등 효 글자 들어가는 아이 이름짓기를 권장한다.

2) 효글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는 마을이름과 지명만들기

예) 안영동 → 효행동, 동명을 바꾸기 어려우면 별칭으로 지어 사용한다. 안영동(→ 효도마을, 경로효친마을), 부모사랑(효친)동, 효자동, 효제동, 보은동, 가족사랑마을 등

3) 효글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는 도로명, 골목길 이름 짓기

예를 들어 효자로, 효자길, 효녀로, 효부로, 효행길, 부모사랑로, 반포지은(反哺之恩)길, 경로효친길, 엄부자모길, 봉양(奉養)길, 보은(報恩)길 등

4) 효글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는 공원 이름짓기

부모사랑공원, 경로효친공원, 보은공원, 부모사랑추모공원(묘원), 부모사랑(추모)수목원, 내리사랑 치사랑 공원, 가족사랑공원 등

5) 효글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는 간판만들기 권장

효자상회, 효자슈퍼, 효자사우나, 효자 카센타, 효자 약국, 효녀 약국, 부모사랑 약국, 부모사랑 학원, 효부 식당, 부모사랑 체육관, 부모사랑 태권도장, 경로효친 학원, 엄부자모 부동산, 어르신 건강원, 경로효친침구, 보은건강식품 등

6) 효 글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는 상품만들기

효도사탕, 효자빵, 효녀빵, 효도라면, 효도비누, 효자손, 효자빗, 효녀선풍기, 부모사랑 이불, 부모사랑 사진관, 경로효친 수건, 어르신 지팡이, 어르신 택시, 효사랑 지압기 등

7) 효글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는 집이름이나 건물짓기

효행당, 효자당, 효도각, 부모사랑호텔, 부모사랑빌딩, 부모사랑회관, 경로효친대학, 효경대학(노인대학 명칭 수정) 등

8) 신설학교명을 효글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기

효자초등학교, 효행중학교, 효친초등학교, 효친중학교, 효사랑초등학교, 효친유치원, 효친어린이집, 효경어린이집, 보은어린이집 등

9) 신설아파트를 효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도록 명칭짓기

효행아파트, 효도아파트, 효경아파트, 부모사랑 아파트, 부자유친아파트, 반포지은 아파트, 부모사랑 빌라, 부모사랑 연립주택, 실버타운, 내리사랑 치사랑 아파트, 혼정신성주택, 보은아파트 등

10) 효도달력/엽서만들기

효자그림이나 효자사진, 효행이야기 등으로 구성된 달력 / 엽서 만들기

2. 기타 권장 사업

1) 효문화홍보대사 임명

효도 연예인 또는 이름에 효자가 들어가는 연예인을 섭외한다. 예) 개그맨 최효종, 가수 씨스타의 효린, 티아라의 효민, 소녀시대의 효연, 탤런트 한효주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2) 학급별칭을 효 내용이 들어가도록 짓기

효도반, 효자반, 효녀반, 효행반, 효경반, 부모사랑반, 반포지은반, 부자자효반, 엄부자모반, 부모순종반, 부생모육지은반, 봉양반, 치사랑반, 보은반, 어버

이은혜반, 사친이효반, 혼정신성반 등

3) 텔레비전 효도프로그램 제작 및 라디오프로그램 제작

예를 들어 효도마을을 찾아서, 부모사랑캠페인, 부모와 함께 춤을, 부모랑 노래하기, 부모님을 대접하기, 어버이은혜 창작동요 및 대중가, 보은의 노래, 사모곡, 내리사랑 치사랑 등

4)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효글자나 효 내용이 들어가는 이름 붙이기

예를 들어 효행사랑원, 부모사랑원, 엄부자모원, 효사랑병원(요양원), 참사랑병원 등

5) 동네마을 골목순찰대

골목호랑이할아버지(송파구의 경우), 해병대전우회할아버지모임 사례를 활용하여 동네마을 골목순찰대 구성 및 운영

6) 효행청소년단 운영

학교별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누리단, 한별단, 아람단 등을 효행청소년단(효행문화자원봉사단)으로 개편·확대하여 운영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익수 외(2009), 한국인의 효사상, 한국사상문화연구원, 수덕문화사.
김익수 외(2011), 한국의 효사상과 정신문화(1), 동양효문화연구원, 수덕문화사.
다시 처음으로...(2011.4), 한국족보박물관1주년기념자료집,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손인수(1997), 한국인의 효도문화, 문음사.
윤성범(1995), 효란 무엇인가, 삼일서적.
장기근(1996), 도덕 윤리 효도의 원리와 실천, 주류일념.
장창수(2010), 효문화지원센터설치방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제2회 국제효학술세미나 자료(2011.11), 대전광역시 효문화지원센터.
지교헌 편저(1997), 한국의 효사상, 지교헌 편저, 민속원.
청소년과 효문화 1집-19집(2001~2011),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한정란(2001),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한국사상과 문화 1집-62집(1997~2012), 한국사상문화학회.
행복의 길 효도하는 삶(2011.10), 효행록 제6호, 한국효행수상자 대전 효도회.
효문화와 현대인의 소명(2009.9), 효문화 학술심포지엄, 사단법인 한국효사상연구회.
효경, 소학,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명심보감 등

부록

【부록 1】 효 속담

. 긴 병에 효자 없다 : 무슨 일이든 너무 오래 끌면 성의가 없어져 소홀해진다.
. 까마귀도 반포의 효도가 있고 비둘기도 예절을 안다 : 사람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잊을 수 있겠는가.
. 남의 자식 고운 데 없고 내 자식 미운 데 없다 : 자기 자식은 못생겨도 잘나 보이는 부모의 애정.
. 늙은 아이어미 석자 가시 목구멍에 안 걸린다 : 늙도록 아이를 많이 낳은 어머니들은 석자나 되는 가시를 먹어도 목에 안 걸리고 넘어갈 만큼 궁하게 지낸다.
.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 :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
. 매로 키운 자식이 효성 있다 : 잘되라고 꾸짖어 키우면 자식이 커서 효도하게 된다.
. 병신자식이 효도한다 : 대수롭지 않은 것(사람)이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경우.
.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있다 : 부모는 누구나 자식을 한 없이 사랑하지만 자식들 중에는 부모의 은덕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 아버지 뼈 어머니 살 : 아버지로부터 혈통과 가풍을 이어받고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영양을 공급받는다.
. 아비만한 자식 없다 :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
.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 모성애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말.
. 열 사람의 작은어머니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더 크다 :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정은 각별하다.
.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 없다 :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걱정은 끝이 없다.
. 자식 둔 부모는 알 둔 새 같다 : 부모는 늘 자식의 신변을 걱정한다.
. 자식 떼고 돌아서는 어미는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 자식을 떼어놓는 일은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다.
. 자식은 어머니가 키운다 : 자식을 키우는 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공이 더 많이 들어간다.
. 자식은 평생 부모 앞에 죄짓고 산다 : 부모의 사랑은 끝없고 지극하여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 :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그 끝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두텁다.
. 자식을 낳기보다 부모 되기가 더 어렵다 : 자식을 잘 기르고 돌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자식이 부모의 맘 반이면 효자 된다 :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 제 부모 나쁘다고 내버리고, 남의 부모 좋다고 내 부모라 할까 : 좋건 나쁘건 인륜관계는 어쩔 수 없다.
. 칠십에 자식을 낳아서도 효도를 본다 : 늘그막에 자식을 보고서도 그 덕을 입게 됨.
.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 자식이 많아도 부모는 잘 거느리고 살아가나 자식들은 그렇지 못하다.
. 집 나갔던 며느리 효도한다 : 한 번 싫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효도를 극진히 한다 함이니 곧 그리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뜻밖에 좋은 일을 한다
. 효부 없는 효자 없다 : 며느리가 착해야 아들도 효도하게 된다는 뜻
. 효자 끝에 불효 나고 불효 끝에 효자 난다 : 효자가 나게 되면 불효자도 나고 불효자가 나면 나중에는 효자도 나게 된다는 말
. 효자 효녀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 : 옛날에 친상을 당하면 오랫동안 거상을 했는데 효자 효녀가 이것을 꼬박 지키느라고 일을 못하였으므로 생긴 말
. 딸 자식이 열 아들 부럽지 않다 : 한 자식이 열 자식 부럽지 않다
.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 :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한다
.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 사람이나 물건이 못난 듯 보이는데 오히려 쓸모가 있다
. 자식 겉 낳지 속은 못 낳는다 :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까

진 알 수 없다는 말
. 자식 둔 골에는 호랑이도 두남을 둔다(자식 둔 골은 범도 돌아본다) : 부모 사랑이 무엇보다 큼을 이르는 말
.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 아이를 예뻐하면 옷에 똥칠을 한다
. 어린애 친하면 코 묻은 밥 먹는다
. 딸자식은 도둑년이다
. 무자식이 상팔자
. 부모는 차례 걸음이라 :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식에게 나이 많은 부모가 으레 먼저 돌아가시는 법이라는 위로의 말

【부록 2】 효 명언

. 그대가 새벽에 저자로 나가 떡을 사는 것을 보는데, 부모에게 드린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자식에게 준다는 말만 들었다. 부모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먼저 배가 부르니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비하지 못하리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떡 살 돈을 많이 내어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은 늙은 부모님을 잘 봉양하라.(명심보감)

. 나를 낳아 고생하며 길러주신 부모님! 그 은혜 보답하려 하나 길이 없도다.(부모은중경)

. 나무가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한시외전)

.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내가 어버이께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강태공)

.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소크라테스)

. 내 한 몸은 곧 백 천만대의 선조가 전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감히 내 몸이 곧 나만의 소유라고 말하겠는가?(장현광)

. 부귀할 때면 부모를 봉양하기가 쉬우나 부모는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가난하고 천하면 자식을 기르기 어렵지만, 자식에게 굶주리고 춥게 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마음에 두 가지 길이니 자식 위하는 마음이 부모 위하는 마음 같지는 않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 섬김을 자식 기르듯 하고 무릇 집이 넉넉지 못한 데 미루지 말라.(명심보감)

. 부모가 늙어 기력이 약해지면 의지할 사람은 자식과 며느리밖에 없다. 아침저녁으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과 잠자리와 즐겁게 말상대를 해 드림으로써 노년의 쓸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라.(부모은중경)

. 부모가 살아 계신다면 멀리 가서 놀지 말 것이며, 놀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공자)

.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더라도,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옳게 행동하는 것은 부모의 명예를 빛내는 것이니 힘주어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시 반성하여, 좋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예기)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되도록 멀리 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멀리 떠날 때는 가는 곳을 분명히 알려 드려야 한다.(논어)

.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장자)

.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오직 두 분 뿐인데도 늘 형과 동생이 못 모시겠다고 다투고, 자식 기르는 것은 열 명이라도 모두 혼자서 맡느니라.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항상 물어보면서도 부모가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받들고 섬기기에 힘을 다하여라. 그대를 기를 때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기셨다네.(명심보감)

.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불경)

.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소크라테스)

. 부모를 왕위에 나아가게 한다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석가모니)

. 부모 앞에서는 결코 늙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소학)

.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공손히 간하라. 설사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

으시더라도 공경해야 한다. 속으로는 애태우더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공자)

.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주희)

.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한다.(논어)

. 부친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부친은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주기 때문이다.(탈무드)

. 슬프도다! 부모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다.(시경)

. 시장에 있는 약 파는 가게에 오직 비아환(肥兒丸, 아이 살찌우는 약)이 있을 뿐, 부모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약은 없으니 어찌 이 두 가지를 차별하는가. 자식도 병들고 부모 또한 병들었다면, 자식 병을 고치는 일을 부모 병 고치는 것에 비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리를 베더라도 원래 부모님의 살이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의 목숨을 극진히 보중하라.(명심보감)

.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는다. 굳이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효경)

.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은 은덕을 어디다가 갚사오리.(정철)

.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경하여 비록 극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 뿐인지라, 털끝만큼도 감격스런 생각으로 볼 것이 못되느니라. 만약 베푸는 쪽에서 덕으로 자임하고 받는 쪽에서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는 곧 길에서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니 문득 장사꾼의 관계가 되고 만다.(채근담)

.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슬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도다. 그 은혜 갚고자 한다면 그 은혜가 넓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다.(시경)

.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탈무드)

. 아버지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탈무드)

. 아이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탈무드)

.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충과 효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알 것이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안락하게 제몸만 보호하는 사람은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이 어떻게 되겠는가.(명심보감)

. 어린 자식들은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대가 듣기에 늘 싫지 않고, 부모가 어쩌다 한번 입을 열면 참견이 많다 한다. 참견이 아니라 부모는 걱정되어 그러느니라. 흰머리가 되도록 긴 세월에 아시는 게 많으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은이의 말씀을 공경하여 받들고, 젖내나는 입으로 옳고 그름을 다투지 말라.(명심보감)

. 어린 자식의 오줌과 똥 같은 더러운 것도 그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늙은 어버이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뜻이 있다. 여섯 자나 되는 몸이 어디서 왔던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이루어졌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명심보감)

. 어린 자식이 혹 나를 욕하면 내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부모가 화내어 나를 꾸짖으면 내 마음은 도리어 언짢아진다. 한쪽은 기쁘고, 한쪽은 언짢으니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어버이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리도 다른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오늘 어버이가 화를 내시면 자식 대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볼지니라.

(명심보감)

.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하고, 이 몸이 이미 효도하지 못했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리요.(강태공)

.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발레리우스)

. 어버이의 사랑은 십분 가득하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효도함이 있으면 그대는 곧 그 이름을 자랑하려 한다. 어버이를 모시는 것은 어두우면서도 자식 대하는 것은 밝으니 어버이가 자식 기른 마음을 누가 알 것인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질없이 자식들의 효도를 믿지 말라. 자식들이 어버이 사랑하기는 그대에게 달렸다.(명심보감)

. 5형에 속하는 죄가 3천 가지이나 그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공자)

. 요즘은 부모에게 물질로써 봉양함을 효도라 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논어)

. 이 세상에는 삼천 가지나 되는 많은 죄가 있다. 그중에서도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대한 죄다.(김시습)

. 입신행도하여 이름을 후세에 드높임으로써 부모를 알리는 것은 효의 끝이다.(효경)

. 자식은 부모님에게 말씀드려 설사 잘못을 고치지 않으시더라도 공경해야 한다. 속으로는 애태울지언정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논어)

. 자식을 길러본 후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왕양명)

. 자식이 부친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경우에 따라 용서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모친에게도 그렇다면 그 자식은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못된 괴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루소)

.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명심보감)

. 저울 한쪽에 세계를 실어놓고 다른 한쪽에 어머니를 실어놓는다면 세계가 훨씬 가벼울 것이다.(랑구랄)

. 젖을 먹는 아직 어린 돼지새끼는 그 어미를 못 잊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가까이 가는 위험한 짓은 범하지 않는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는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순자)

.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의롭지 않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한다면 자손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랴.(명심보감)

.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이이)

.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효도하고 순한 아들을 낳으며, 오역(지옥에 갈만한 큰 죄)한 사람은 오역한 아들을 낳는다. 믿지 못한다면 저 처마끝의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어긋남이 없다.(명심보감)

. 효자의 어버이 섬김은 살아서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함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신 때에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신 때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낼 때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공자)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성경 십계명)

【부록 3】 효 사자성어

1.견마지양(犬馬之養) : 공자가 한 말로,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 부양만하는 것을 뜻함. 집에서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같다는 뜻

2. 동온하청(冬溫夏청) : 부모에 효도함.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해 드림

3. 望雲之情(망운지정) : 객지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4. 부자천합(父子天合) : 부자관계는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 (군신의합(君臣義合) : 임금과 신하라는 관계는 공동의 목표 곧 의지에 의해서 부합된관계 라는 뜻)

5. 부자유친(父子有親) : 아버지와 아들의 道는 친애에 있음. 五倫의 하나

6. 부위자강(父爲子綱) :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지킬 떳떳한 도리. 삼강의 하나.

7. 반의지희(斑衣之戱) : 부모를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기어가 보임

8. 반포지효(反哺之孝) :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

9. 반포보은(反哺報恩) : 자식이 부모가 길러 준 은혜를 갚음

10. 백운고비(白雲孤飛): 멀리 떠나는 자식이 어버이를 그리워 함

11. 백유지효(伯兪之孝) : 韓伯兪는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로부터 종아리를 맞아도 아프지 않다하여 어머니의 노쇠함을 탄식함.

12. 사친이효(事親以孝) :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써 함. 세속오계의 하나

13. 왕연지효(王延之孝) : 왕연의 효. 왕연은 중국 진(晋)나라 사람으로 효성이 지극했음

14. 출필곡반필면(出必告反必面) : 밖에 나갈 때 가는 곳을 반드시 아뢰고, 되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 드린다. 出告反面

15. 풍수지탄(風樹之嘆) :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는 돌아가셔서,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슬픔

16. 혼정신성(昏定晨省) : 조석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

17. 호천망극(昊天罔極) : 끝없는 하늘과 같이 부모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함

18. 효조(孝鳥) 또는 자오반포(慈烏反哺) : 까마귀도 반포(反哺)하는 정이 있다는 뜻. 까마귀는 어릴 때 먹여주던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면 자식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제 어미를 먹인다고 한다.

【부록 4】 효 격언

. 요즈음은 부모에게 물질로써 봉양함을 효도라고 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써 구별하랴.(공자)

. 대효(大孝)란 지효(至孝)를 말함이다. 한 사람이 능히 한 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능히 천하의 사람들을 느끼도록 하나니, 천하의 지성(至誠)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리오. 사람이 느끼면 하늘도 또한 느끼느니라.(천도교의 팔리훈강령)

. 효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며 또한 교화의 근원이다.(공자)

. 사람의 행위 가운데 효보다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그를 하느님 옆에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효경)

. 효의 세 가지 조건

1. 부모를 존경하는 것
2. 부모와 가족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3. 부모에게 좋은 음식·의복 및 따뜻한 밥을 해드려 편안히 모시는 것(예기)

. 효라는 것은 행인(行仁)의 근본이다.(공자)

.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慈)이고, 자녀가 부모를 잘 받드는 것이 효.(이황)

. 효도는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 중간 단계이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소학)

.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에 인하여 그로서 하늘을 받드는 도리를 밝힌다.(이황)

. 어버이가 살아 계시면 뜻을 살피고, 돌아가시면 생전의 업적을 본받아 3년간을 고치지 않고 좇는 것이 효이다.(논어)

. 효도란 하늘의 떳떳한 것이며, 땅의 옳은 것이며 백성의 행실이다. 이는 하늘과 땅의 떳떳한 것을 백성들이 본받은 것이니, 하늘의 밝은 것을 본받고 땅의 옳은 것을 좇아서 이것으로 천하를 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가르침은 엄숙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며, 그 정사(政事)는 엄하지 않고서도 다스려 지는 것이다.(효경)

.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어버이인 것을-아들이 내내 봉양하려 한데도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나니, 그러므로 돌아가신 뒤에 소를 잡아 제사지냄이 차라리 생존해 계실 때 닭·돼지로 봉양해 드림만 같지 못한 것, 처음에 내가 관리가 되어 녹(祿)이 여섯 말 네 되도 못 되었으나 오히려 기뻐한 것은 그 녹이 많다고 생각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써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음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어버이께서 돌아가신 후 내가 남쪽 초나라에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북쪽을 향해 눈물을 흘린 것도 그 벼슬이 천(賤)하다고 생각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버이에 게는 미칠 수 없음을 슬퍼한 때문이다.(증삼이 부모를 여읜 뒤에)

. 부모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같지 못한다.(석가)

.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홈스)

. 부모 앞에서는 결코 늙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장자)

. 무릇 효가 덕의 근본이다.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시작된다.(효경)

.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또한 효도하고 순한 아들을 낳으며, 오역(불교의 지옥

에 갈만한 큰 죄)한 사람은 또한 오역한 아들을 낳는다. 믿지 못한다면, 저 차마 끝의 낙수(落水)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어긋남이 없다.(명심보감)

. 효자의 어버이 섬김은 살아서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함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신 때에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신 때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낼 때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공자)

.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이이)

.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소크라테스)

. 자식을 길러 본 후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왕양명)

. 자식이 부친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혹 경우에 따라 용서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모친에게도 그렇다면 그 자식은 세상에 살아 있을 가치가 없는 못된 괴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루소)

.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명심보감)

. 장부가 세상에 나서 쓰일진대,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칠 것이요, 만일 쓰이지 않으면 물러가 밭가는 농부가 된다 해도 또한 족할 것이다.(이순신)

. 젖을 먹고 있는 아직 어린 돼지 새끼는 그 어미를 못 잊어하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가까이 가는 위험한 짓은 범하지 않는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는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말.(순자)

. 조국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또 그 밖의 모든 조상들보다도 더욱 귀하고 더욱 숭고하고 더욱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

에 순종해야 한다.(소크라테스)

.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목표이다.(간디)

.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슬퍼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네크라소프)

. 조상을 받드는 것은 정성과 공경을 으뜸으로 해야 하고, 물질적 사치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조상이 전한 일은 그 뒤를 잘 이어 나가야 하고, 늘 게을러질까 근심해야 할 것이다.(이덕홍)

.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의롭지 않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한다면 자손 많은 것이 무슨 소용 있으랴.(명심보감)

. 내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기 바라고,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기 바란다.(불경)

. 내 자식들이 해 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소크라테스)

【부록 5】 효 표어

1. 부모님이 주신 사랑 효행으로 보답하자
2. 부모님의 평생은혜 우리들의 평생효도
3. 하늘보다 높은 은혜 바다보다 넓은 사랑
4. 나중에 후회 말고 생전에 효도하자
5. 한 번 실천한 효도 백번 말보다 낫다
6. 안 계실 때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자
7. 이마 위의 주름살 자녀 위한 부모사랑
8. 언제라도 부모효도
9. 어른공경 그게 효도
10. 인사부터 착실하게
11. 살아생전 효도하자
12. 자녀위한 부모사랑
13. 계속한 효행 당신에게 돌아온다
14. 효행으로 사랑하고 효행으로 감사하자
15. 지금 내가 효행하면 나중 가서 후회 없다
16. 매일해도 모자란 효도 부모님의 사랑을 갚자
17. 효도하는 사람들은 어른들도 공경한다.
18. 부모는 자식뿌리 부모행복 자식행복
19. 부모님은혜에 대한 보답은 부모님 즐겁게 하는 것
20. 부모님은 하늘입니다
21. 효도해서 복 받자
22. 지금 내가 한 효행 20년 후 당신이 받을 효도가 됩니다
23. 먼 훗날에 후회 말고 계실 때 효도하자
24. 있을 때 후회 말고 늦기 전에 잘해드리자
25.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
26. 30년 후의 내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이라면
27. 효도, 미루다보면 끝내 하지 못하는 것

【부록 6】 효지도사과정 및 시민대상 교육 강사진 구성 사례

◈ 기본과정

1. 효도와 관련법규 / 연기영(동국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2. 한국의 효사상사 / 김익수(동양효문화연구원장, 철학박사)

3. 중국의 효사상 / 조준하(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4. 한국의 효문화 / 지두환(국민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5. 효와 예절지도 / 이문주(성균관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6. 한국의 예문화 / 배상현(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문학박사)

7. 한국인의 효교육 / 장재천(용인대학교 교수, 교육학박사)

8. 현대효행사례분석 / 성보용(경희대학교 교수, 정치학박사)

9. 효교육문화유적지답사 / 김익수(동양효문화연구원장, 철학박사)
   예) 파주 자운서원

10. 효교육문화사(소학) / 한관일(청주대학교 명예교수, 교육학박사)

11. 정조대왕의 효문화 / 임형진(고려대학교 교수, 정치학박사)

12. 불교의 효문화(1) / 소순자(청룡사주지, 철학박사)

13. 효의 이론과 실제(1) / 배영기(숭의여자대학 교수, 교육학박사)

14. 이륜행실도연구 / 이미숙(청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문학박사)

15. 효도와 노인복지법 / 정종열(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전문과정

1. 한국의 효사상사(2) / 김익수(동양효문화연구원장, 철학박사)

2. 중국의 24효도양상 / 조준하(동덕여대 명예교수, 철학박사)

3. 한국인의 효문화(2) / 오석원(성균관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4. 효경(孝經) / 심우섭(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5. 논어(論語) / 이기동(성균관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6. 정조의 효문화 / 임형진(고려대학교 교수, 정치학박사)

7. 불교의 효문화(2) / 신규탁(연세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8. 학교의 효행교육의 방향 / 장재천(용인대학교 교수, 교육학박사)

9. 효의 이론과 실제(2) / 배영기(숭의여자대학 교수, 교육학박사)

10. 효와 정치와 교육 / 지두환(국민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11. 율곡의 효사상 / 김익수 (동양효문화연구원장, 철학박사)

12. 효사상과 현대 / 이재우(건국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13. 효문화유적지답사 / 임형진(고려대학교 교수, 정치학박사)
  예) 화성 융·건릉

14. 이륜행실도연구 / 이미숙(청주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15. 효도와 노인복지법 / 정종열(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정책연구보고서 2012-06

효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교육방안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7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
전화 / (042) 530-3545
팩스 / (042) 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주)유신당 TEL : (042) 624-0409 FAX : (042) 638-268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